東大新聞

제1014호 〈주간〉 1964.1.1 등록번호 다—10 1955.10.13 제3종우편물(가)급인가 The Dongguk University Press 1989년(단기4322년)3월15일 (수요일) 【1】

발행인 이지관 / 편집인 송재운 / 주간 임영정 / 편집국장 신관호 / 편집장 노건환

펴낸곳 : 동국대학교 동대신문사
서울시 중구 필동3가26(☎267—8577)
경북 경주시 석장동707(☎41—4132)

인쇄인 이규행

今週一言

나를 욕하고 꾸짖더라도 네가 이기고 내가 졌어도, 가볍게 마음에 즐거움 두면 원한이 마침내 사라지리라。

<法句經·雙要品지장>

89학년도 등록금 전면 동결

지난9일 협상타결,「재단활·추·위」구성은 대립
신입생인상액환불…발전기금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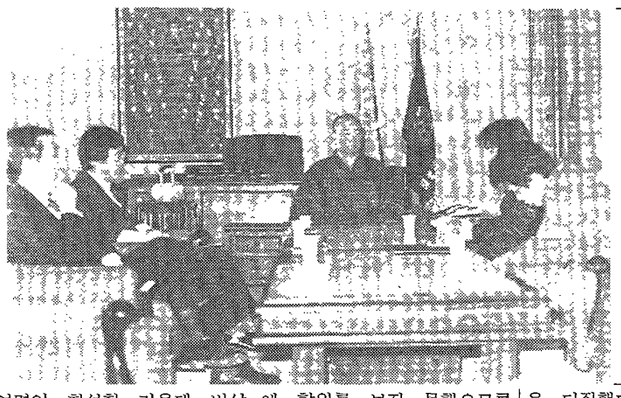
89학년도 제1학기 등록금이 전면동결됐다。

이는 金榮雄기획조정실장, 尹賢普총무처장, 宋在雲학생처장과 학생대표로 학자투위원장 이승민 (영문4) 법대학생회장 윤지훈 (법학4) 비상총학기획부장 김봉준 (야간경영4) 君등 6명이 지난9일 오후12시 등록금동결에 합의함으로써 이뤄진 것이다。

합의사항은 ▲등록금책정시 학생대표와 협의후 책정토록 공동노력한다 ▲89학년도 1학기 등록금은 동결한다 ▲신입생등록금도 동결하며 10% 인상분은 환불한다 (환불방법과 시기는 신입생의견을 전적으로 반영한다。단, 총학생회는 환불금액이 동국발전을 위해 쓰일수 있도록 노력한다) 등이다。

이번 합의로 등록금은 동결됐지만 재단활성화추진위구성을 둘러싸고 학생들이 등록금 납입거부운동을 벌일것으로 보여 당분간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등록금동결과 재단활성화추진위 구성을위한 제2차 범동국인 궐기대회」가 지난10일 오후2시 학생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총학주최로 도서관앞에서 열렸다。



◇재단 활성화 추진위 구성을위한 재단과 학생측의 의견절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상총학 기획부장 김봉준 (야간경영4) 군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대회는 비상총학생회장 박영규 (사회4) 君의 인사말, 등록금동결타결 경과보고, 투쟁결의문 낭독의 순으로 이어졌다。

학자투 위원장 이승민 (영문4) 군은『재단전입금확보와 재단활성화 추진위원회 구성에 합의를 보지 못했으므로 이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것』을 다짐했다。

또 문과대학생회장 이용규 (철학4)군은 결의문을 통해『위대한 동악공동체건설을 위해 학자투 깃발아래 대동단결 투쟁하자』고 말했다。

한편「등록금 동결과 재단 활성화 추진위원회 구성을위한 범동국인 결의대회」가 지난8일 오후1시 비상총학주최로 학생5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도서관앞에서 열렸다。

비상총학 기획부장 김봉준군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대회는 비상총학생회장 박영규군의 인사말, 학자투 경과보고, 신입생의 입장표명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학자투위원장 이승민군은 경과보고를 통해『10여차례 학교·재단측과의 협상에서 학교와 재단은 등록금동결과 재단활성화추진위구성에 계속 불투명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재단활성화추진위 구성을 통한 물적구조의 혁신을 이룩하기위해 1만학우의 주체적 대오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회가 끝난후 학생5백여명은『재단 활추위 즉각 구성하라』『전입금을 확보하여 등록금을 동결하자』는등의구호를 외치며 본관앞에서 시위를 한후 자진해산했다。

학사일정 확정

89학년도 제1학기 학사일정은 3월2일 개강하여 6월21일경 종강하며 하계방학은 6월22일부터 시작된다。

金炯秀 부총장 9일 취임

"교직원·학생 인화로 동국발전을"

경주캠퍼스 金炯秀 부총장 취임식이 지난9일 오전11시 교수 직원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강당Ⅱ에서 열렸다。 <인터뷰 7면>

이번 취임식은 李正一 (생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먼저 閔丙天前부총장은 이임사에서『비록 이 자리는 떠나지만 마음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할것이며 캠퍼스 구성원모두가 합심해 명랑한 캠퍼스를 만들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金炯秀신임부총장은 취임사를 통해『혼란기의 대학현실에 중책을 맡아 책임을 통감하며 총장을 보필해 교직원·학생의 기대에 어긋나지않게 행동할것이며 동국의 발전에 혼신을 다할것』이라고 말했다。

金부총장은 또『현재 가장 시급한 것이 학내의 인화』라고 언급하면서『동국가족 모두는 합심하고 감성보다는 이성으로 매사에 임할때 동국은 영원히 발전할것이며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이끌어 주길 바란다』고 말하고 취임식을 모두 마쳤다。

교내청소 재개

본지 1013호 (3월8일자) 기사중 본교 청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은후 지난11일부터 부분적으로 청소가 진행되고있다。

이는 지난달 28일자로 계약이 만료된 일경용역과 학교측간에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은채 학교청소를 담당하는 용역원 53명이 일자리를 잃은 상태에서 용역원전원이 용역회사에 집단사표를 내고 현재까지 일일잡급의 형태로 학교측과의 협의하에 교내청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준호君 2관왕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서

氷上 이준호 (경영대학원)군이 지난1일부터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벌어진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금2, 은2개를 따내는 쾌거를 이룩했다。

지난11일하오4시 셀텔버흘에서 벌어진 대회500m숏트랙 결승에서 이군은 46초24를 기록 1위를 차지했으며 다음날 벌어진 5천미터계주에서도 우승을 차지했다。한편 1천m숏트랙경기와 3천m결승에서는 각각 2위를 차지했다。

本社辭令

任期滿了

편집장 盧建煥 (문과대 국문과4)
취재부장 林秀炫 (사회과학대 사회4)
취재2부장 鄭星基 (인문과학대 영문4)
문화부장 南眞玲 (문과대 영문4)
기획부장 池喜鉉 (농과대 임학4)

신임부장단

편집장 鄭愚錫 (사회과학대 정외3)
취재부장 金 逸 (문과대 사학3)
학술부장겸 특집부장 李鍾碩 (사회과학대 정외3)
논설부장겸 사진부장 池東哲 (이부대 전자계산3)
문화부장 金敬愛 (이과대 통계3)

<이상 3월 15일자>

교수동정

▲韓泰植 (선학과) =「신라정토사상연구」라는 논문으로 지난달 22일에 있은 일본경도 불교대학 문학박사 학위 수여식 참석및 학술조사를 마치고 지난달 27일 귀국。

▲李璜雨 (경찰행정학과) = 지난 2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뉴욕시립대학에서의 미국경찰제도에 관한 체계적 연구를 위해 渡美。

총학 3組 입후보…본격 선거체제로

20일 첫유세 "자주의 광장넘어 진리의 함성으로"

여총 이정옥·김인숙조 입후보

오는 29·30일 실시되는 서울캠퍼스「제21대 총학생회정부회장선거」에 등록마감일인 지난13일까지 3팀이 입후보, 본격적인 총선체제에 돌입했다。

기호1번 이기재 (토목4)·이응순 (정외4) 군은『멈출수 없는 역사의 수레바퀴여, 민중시대의 찬란함이여!』라는 슬로건을, 기호2번 김성규(사학4)·윤평현 (독문4) 군은『구국의 횃불들고 하나됨의 몸짓으로 통일조국의 신새벽을 노래하라!그대 자주동악이여!』와 기호3번 채범기(행정4)·이원희 (야간·경영4) 군은『무등의 불꽃 피끓는 가슴안고 활활 타오르는 동악이여!솟구쳐라 해방의 주체로!』를 기치로 내걸고 각각 입후보했다。

민족통일과 자주동악건설을 공통공약으로 내세운 후보들은 등록마감당일 클미팅과 사진촬영을 마쳤으며, 오는16일 입후보자공보를, 오는20일 오후1시 1차유세를 도서관앞에서 갖는다。

제5대 총여학생회 정·부회장 후보에는 이정옥 (국문·4)·김인숙 (수교·4) 조가 지난13일오후5시『침묵의 역사를 딛고 일어서라, 목멱의 딸들이여!』『가자! 혁신하는 총여학생회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단독입후보해 오는28·29일 양일간 찬반투표로 결정짓게 된다。

지난13일오후5시『침묵의 역사를 딛고 일어서라, 목멱의 딸들이여!』『가자! 혁신하는 총여학생회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단독입후보해 오는28·29일 양일간 찬반투표로 결정짓게 된다。

포항병원 쟁의신고 근로시간연장 거부

의과대학 부속 포항병원 노조 (위원장=김상봉) 는 지난13일 노동쟁의 신고를 내고 14일오후5시30분부터는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단체행동에 들어갔다。

노조측에 따르면 지난해12월부터 지난 9일까지의 병원당국과 7차례협상에도 불구하고 병원측이 주요사안인 임금인상 (평균 19.3%, 5만2천1백5원) 과 행정직원과 일반의료기술직원에 차등 적용되는 호봉제 단일화에 대해 무성의 한점등이 노동쟁의 신고 사유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노조는 주근무시간 현행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줄일것과 이의 초과시 수당을 지급할것, 노조전임자에게 평균 임금을 지급해줄것등을 요구해 합의된바 있으며 임금인상 요구액은 물가상승률 (7.2%) +경제성장률 (12.1%) 에 근거한 것으로 인상된다해도 전국 대학병원 수준에는 훨씬 못미치며 복지후생시설도 부족한 점등을 들어 지난 2월중순부터는 리본달기를, 지난 8일부터는 피켓시위를 추가하는등의 단체행동을 벌여왔다。

남녀 수습기자 모집

大學言論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있는 本社에서는 어둡과 혼돈의 時代를 예리한 필봉으로 파헤쳐 나갈 意識있는 男女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①모집인원 : 서울 및 경주캠퍼스 00명
②응시자격 : 1學年 男女 在學生
③모집분야 : 일반 및 사진기자
④제출서류 : 本社 소정양식 1통
명함판사진 1매 (지원서는 본사 총무부에서 배부中)
⑤원서접수 : 서울 4月6日 오후4時까지
경주 3月30日 오후4時까지
⑥시험일자 : 서울 4月6日 오후5時
경주, 3月30日 오후5時
⑦시험과목 : 1차 필기—국어·상식·작문
2차 면접—1차합격자에 한함
⑧원서제출처 : 본사 총무부
⑨시험장소 : 학림관 J201 (서울캠퍼스)
※학생기자에게는 규정에 의해 소정의 급료와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1989년 3월 일

東大新聞社

보리수

부처님의 수많은 가르침은 오직 한가지 목적만을 가지고 있다。그것은 바로 열반의 성취이다。경전은 이것을<큰 바다는 한 가지 맛, 즉 짠 맛만 가지고있다。이처럼 이 법과 율은 한 가지 맛, 즉 고의 맛과 고의 소멸의 맛(열반)뿐이다。>라고 표현하고있다。

열반이라는말은 Nirvana의 음차이다。이 말은 苦가 없는 상태, 苦의 소멸상태를 나타내고 있다。그래서 열반을<멸>이라고 번역하는 것이다。괴로움이 소멸된 상태, 괴로움이 없는 상태란 어떠한 것인가。그것은 바로 행복이다。결국 열반이란 현대개념으로는 행복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

열반이 행복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서 세속적인 행복과 같은 것은 아니다。세속적인 행복을 불교에서는 완전한 행복으로 보지 않는다。그것은 고의 일종으로 생각 한다。왜냐하면 그것은 재산, 명예, 건강등과 같이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기때문이다。이와같은 행복의조건들은 우리들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우리들의 의지나 바램과는 상관없이 수시로 변해 버린다。그것들이 변하면 우리들이 행복이라고 믿고 있었던것도 변해 버린다。

열반은 이것과는 다르다。그것은 외부의 조건들에의해 성취되어 지는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외부적인조건에의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바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그래서 열반은 완전한 행복이라고 할수있는 것이다。열반은 이루기가 어렵지만, 일단 얻기만 한다면 그것은 진정하게 우리들의 것이다。그것은 변하거나 소멸되어 지지 않는다。

행복의 추구자

불교가 추구하는 최고의 이상이 열반이고, 열반의 현대적인 의미가 행복이라고 한다면, 불교인이란 행복을 얻기위한 방법을 배우고 그 길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다。즉 불교인들이란, 한마디로 행복의 추구자들인 것이다。

尹 炳 植

第4回 全國 大學生論文 懸賞公募

신한은행은 재일동포들의 정성어린 출자로 설립된 은행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며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사랑하는 은행으로서 젊은이의 꿈과 야망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읍니다.
신한은행은 지난 1, 2, 3회 공모때 대학생 여러분이 보여준 뜨거운 호응에 보답코자 금년에도 국내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전국 대학생논문 현상공모를 실시합니다.
높은 학구열과 진리탐구 의욕에 불타는 전국 대학생여러분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신한은행 개요

- 설립일 : 1982. 7. 7
- 은행장 : 김 재 윤
- 자본금 : 2,000억원
- 총 수 신 : 2조 8,475억원(1989. 2월말 현재)
- 영업점망 : 국내 64개소, 해외 2개소

공모요강

1. 자 격
- 전국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2. 공모논제
1) 金融·資本市場의 開放戰略
2) 不動産投機와 土地政策
3) 勞使關係의 發展과 勞·使·政府의 責任
4) 農業政策의 長期構想

3. 응모마감일
- 1989. 6. 10(토) (우송시 당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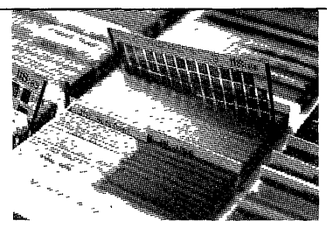
4. 당선작발표
- 1989. 7. 1(토)
- 당선자 개별 통지 및 한국경제 및 매일경제신문에 공고

5. 상 금
- 최우수작 : 1편이내 300만원
- 우 수 작 : 2편이내 각 100만원
- 가 작 : 3편이내 각 50만원
- 입 선 : 5편이내 각 20만원

6. 응모요강
- 논문매수 : 200자 원고지 70~80매 내외(7~8매 정도의 요약분 첨부요)
- 제 출 처 : 당행 본점 기획조사부(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120) 및 지방소재 점포

7. 기 타
- 응모작 제출시 연락처를 명기하고 본인 재학증명서 1통을 첨부할 것
- 접수된 논문은 일절 반환치 않음.
- 학교명이 인쇄된 원고지는 사용치 말 것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행 본점 기획조사부로 문의할 것 (전화번호 : 756-0505 교환 3041)

새싹의 꿈 키우는 보람
신한은행



사회과학 분야의 최신 자료들을 만나보십시오

특히 1983년부터 1989년 현재까지의
국내외 최신자료가 풍부하게 마련되어 있읍니다.

자료의 분야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법학, 행정학, 경영학, 심리학, 인류학, 사회사업, 여성학, 지역 연구 및 그 인접분야

자료의 종류
- 참고자료(3층)
국내외 전문서적 3만권
정부간행물
통계자료 및 미국 입법부 자료
랜드 연구소 자료
브루킹스 연구소 자료
- 정기 간행물 및 학위 논문(4층)
국내외 정기 간행물 850여종
학위 논문 및 각종 논문집
- Microfilms & Microfiches

열람시간
- 참고 열람식/정기 간행물 및 학위 논문실
평 일 09:00~18:00
토요일 09:00~15:00
- 일반 열람실
평일·일요일 09:00~22:00



한국사회과학도서관
THE KOREA SOCIAL SCIENCE RESEARCH LIBRARY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304-28 C.P.O. BOX6607 SEOUL, KOREA
TELEX: K26289 ESQUIRE CABLE: "ESQUIRE" SEOUL
TEL: 738-5015, 739-9258

社 說

학원자주는 사회민주화 척도

대학구성원들의 학사행정참여는 당연

학원의 자주화와 민주화의 올바른 입지설정이 안돼 본교를 비롯한 전국의 각 대학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선구적인 本校의 학원자주화 투쟁만 보아도 지난해부터 꾸준히 계속돼고 있지만 그 전도는 밝은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수십년 동안 군사정권의 일방적인 행정적 지시를 통한「교육을 통한 대학생 길들이기」에 젖어온 대학은 민주화로 가는 도도한 흐름에도 아랑곳 없이 구각을 벗기보다는 각 소속집단의 이익때문에 학원자주화와 사회민주화의 대도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학생들의 학사행정 간여는 있을 수 없고 대학내 폭력사태는 공권력을 투입하여 대처한다』는 특유의「실정법대로」의 처리를 공언함으로써 타율에 젖어온 대학내 자발적 개혁의 열기를 짓누르는 것만 보아도 학원자주화의 길은 멀고 험함이 현실로 다가온다. 학원내 민주화도 보탓빛만은 아니다. 봉건적 교권에 안주하고 있는 많은 교수들에겐 학생·직원등이 학사행정, 총장선출, 등록금 책정등의 참여를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으니 문제다.

하지만 우리는 교수님들의「가르칠 권리」가 인정돼듯 학생의「배울권리」도 인정돼야 하며"그렇기 때문에 대학의 기능은 서로 공유돼야 할 부분이라고 믿는다. 최근 ㅣ부총장을 경주교수회에서 사실상 선출한 것은 학원 민주화의 큰 진전이며 경주캠퍼스 구성원들도 반기는 것으로 알고있다. 그렇지만 경주캠퍼스 학생들과 지난해 부총장 선출시 학생참여, 1인직선제등의 합의의 파기와 경주직원노조가 성명을 통해「대학의 자율권 확보와 운영의 민주화를 저해하고 시대의 흐름및 역사발전에 역행하는 행위」라는 지적은 타당하다.

대학이 교수·학생 조합방식으로 태동돼 대학의 자치가 철저히 보장받아 왔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 물론 국가나 사회의 특수한 사정에 의해「자치의 質」을 결정하거나 제약함은 있어왔다. 그러나 이 자치의 質은 대학구성원들의 자주성을 발양하려는 의지와 역량에 달려있다. 얼마전 일부 대학에서 교수·학생 직원·동문등이 참여 구성되는 「대학자치운영협의회」「대학발전위원회」등은 그 대학 구성원들의 자치와 자주화의 열망이 결집「자치의 質」의 새로운 장을 연것으로 파악된다.

우리사회에 있어 대학은 특권을 누리는 향유처가 아닌 이땅의 자유보장의 척도며 사회민주화 진전의 교두보이다. 그러므로 대학의 자주적 민주적 운영으로의 진전의 진폭은 우리사회 민주화의 현실가능태와 반동의 대응탄력성을 가늠하게 한다.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대학전구성원의 의사가 포괄적으로 반영되는 학원건설을 위한「제도적 틀」이다.

「재단활·추·위」 구성이 절실하다

수익사업 체계로 전환해야

등록금문제가 동결되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몇달여에 걸친 등록금협상에서 일단 학교당국이 학생들의 동결요구를 받아들여 신입생을 포함한 모든 등록금을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로써 다른 대학들과 같은 큰 진통을 겪지 않고 등록금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여전히 문제의 소지는 남아있다.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부족을 어떤식으로 메우느냐는 문제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학교당국에서 학생들이 반대하는 긴축재정방식을 굳이 고집하고 있다는데 있다.

즉, 모든 부서의 살빼기작업과 아울러 장학금수혜의 폭 축소, 새로운 교수임용을 포기할 수밖에없다고 밝히고 있기때문이다. 이에대해 학생들은 경영의 합리화를 통한 예산절감과 근본적인 재정확보책을 마련하자고 주장하고 있기때문이다.

학생들이 이같이 주장하는데는 나름대로 타당성이있다. 비록등록금이 동결되었다해도 그로인한 재정부족이 학생들에게 피해로써 돌아간다면 재정난을 등록금인상으로 해결하려는 것과 다를바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재단으로부터의 전입금이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점을 지적, 재단활성화로써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것이다. 구체적 방안으로「재단활성화추진위원회」(이하 재단활·추·위)를 구성해서 재단의 사업체계를 수익사업체계로 전환함으로써 재단활성화와 재정난을 극복하자고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재단에서는「재단 활·추·위」구성에 소극적이다. 지난해 학자투당시 수익사업체계로의 전환을 약속한바 있는 재단이 과연 이를 이행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지난주 본란에서 재단이 제역할을 다하고 등국발전을 꾀하기위해서는「재단 활·추·위」가 구성돼야 한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본교를포함한 대부분의 사학들이 공통적으로 겪고있는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재단의 활성화 방안보다 더 절실한 것은 없기에 말이다.

「재단 활·추·위」구성은 특별위원회형식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타당함으로 재단이사와 교수·학생·직원·동문대표등 그 개별주체가 폭넓게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중점사업은 재단의 수익사업체계로의 전환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또한 일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재단 활·추·위」산하에「재단재산처분소위원회」를 두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 아울러 그밖의 재단의 활성화를 꾀하기위한 다각적인 연구검토가 뒤따라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재단활성화는 더이상미룰수 없는 가장 절실하고도 시급한 문제이다.

해외여행자유화
서투른 개방정책으로 많은 병폐 가져와

인신매매에 의한 해외위장취업 성행
위화감형성등 계층간의 갈등 심화돼



延 基 榮
<법과대교수·민법>

지난해 7월1일 해외관광 허가연령을 30세로 내린 조치에 이어 올해부터 해외여행 자유화가 실시 되고 있다. 지난 2월7일에는 재무부가 개인이나 법인의 해외부동산투자의 전면적인 자유화를 골자로 하는<해외투자 활성화방안>까지 발표하였다. 수출로 벌어들인 돈을 해외에서 써야한다는 흑자관리에 대한 정부의「쓰자」일변도 정책의 단면이라고 보여진다.



이러한 해외여행 해외투자의자유화는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당연한 조치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사회구조적·민족경제적측면에서 많은 모순과 손실이 뒤따른다는 점을 지나쳐버릴수 없을 것이다.

우선 자유화이전에는 변칙적 방법으로 행하여진 부유층의 해외재산도피가 합법적으로 자행될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세계자본주의체제에 편입된 한국경제는 미국·일본등으로부터 종속적 위치에 놓이게 되었으며 국가독점자본주의로 구축되어 가는 과정에서 특정지배층에 재화가 집중되는 현상을 빚었다.

따라서 해외여행을 구가할 수 있는 자는 금력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다. 저임금·저소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에 바쁜 노동자·농민들은 해외여행이 그림의 떡일 수 밖에 없다.

여기서 사회적 위화감이 조성될 우려가 많고 계층간의 갈등이 심화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우리경제가 급속하게 발전해온 이면에는 노동자와 농민등의 희생이 밑바탕이 되었다. 아직 경제성장의 혜택은 우리사회에 고르게 확산되지 못하고 있으며, 민중을 주인으로 섬기는 올바른 민주적 정책은 제대로 수행되어 오지 못하였다. 자주·민주·통일로 나가는 한국사회에 걸맞는 사회적·경제적·문화적 구조의 변화가 해외여행의 개방정책에 앞서야한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대외적으로는 자주화를 통해 개방압력을 막고, 대내적으로는 민주개혁을 통해 경제적 혜택과 부담을 고르게 나누어 가지는 경제체제를 실현하는 것이「자유화」나「국제화」의 전제조건이다. 무모한「자유화」정책은 민중의 생존권요구를 희생시키면서 지배층의 해외재산도피, 섹스관광등을 합법화, 활성화시켜 주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많다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더 크게 염려되는 일은 국제적 인신매매가 위장취업의 형태로 성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등에 여성근로자들을 팔아넘기면서 활동하던 인신매매단의 조직과 상황이 일부 밝혀졌다는 보도가 얼마전에 있었다.

물론 인신매매는 자본주의 운동법칙속에서 생성되는 비인간적 흉악범죄행위이다. 이윤만을 추구하겠다는 자본주의적 목적에 몰두하다 보면 모든 대상이 상품으로 보이고 여기에 내재하고있는 범죄성과 폭력성이 상승하여 저질러지는 극악무도한 행위이다.

『소녀에서 주부까지 대낮 납치 공포』『인신매매 직장여성 노린다』이런 제목들이 요즈음 매스컴의 지면·화면을 뒤덮는다. 이러한 충격적인 일은 해외여행의 자유화조치에 따라 국제적인 무대를 대상으로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인신매매는 물론 매춘을 목표로 하는 여성들의 위장취업뿐만이 아니라 싼노동력을 구하는 해외의 작업장이나 조직인 신매매단에 수출하는 노예매매의 경우까지 생각할 수 있다.

해외 위장위업을 통한 인신매매의 현상은「해외여행자유화」조치에 따른 정부의 무책임·무방비한 대책없는 정책에서 기인한다고 하겠다. 물론 그 뿌리는 우리나라의 정치·사회·경제·문화의 구조적 모순과 갈등에서 찾을수 있다.

비민주적·반민중적인 산업화를 통해 우리 한국사회는 불균등한 힘의 관계가 심화되어 왔다.

이 불균등한 산업화는 내수보다는 수출산업에, 농업보다는 공업에, 노동자보다는 자본가에 힘이 모아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민중의 소외는 더욱 심화되어 저임금, 남녀차별, 노동환경의 악화등으로 나타난것이다.

사회구성원들이 서로 의존해야 하는 공동체적 생존기준은 도덕적 차원에 의해 설정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공동체적연대의 도덕적 기준이 약화될 경우 상품화속에 내재하는 범죄성과 폭력성이 노골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 가능성은 우리 생활의 많은 비중을 가능하면 스크린, 스포츠섹스라고 불리워지는 이른바「3S영역」으로 몰아넣는 정치적 음모가 자행된다.

이 세분야는 서로 공존관계를 유지하면서 국민의 정치의식을무력하게 만들거나 정치의 무관심을 조장하여 체제유지를 굳건히 하려는데 이용되기도 한다. 예를들면 폭력과 스포츠와 섹스를 상품내용으로하는 미국영화를 무제한적으로 방영할때"국민의식은 마비상태로 빠져들게될 것이다.

「개방화」「국제화」에 따른 해외여행의「자유화」는 근본적으로 많은 병폐를 가져오게 됨을 명심해야 할것이다. 사회적 경제적 균등화를 이루지못한 현실속에서는 특정권력이나 금력을 가진계층의 사람들만 자유화의 특권을 누리게 됨은 누구나 다 아는바이다.

우리 사회구성체를 형성하는 일부 특권층의 섹스·향락관광의 조장과 외화도피·유출로 인하여 계층간의 갈등과 위화감이 심화될 것이다. 한편으로는 정치권력과 독점재벌에 대한 노동자·농민의 이해관계적 요구가 급증하면서, 최근 보여 주고 있는 거친행동은 오히려 당연하게 받아 들여 질 것이다.

위장된 해외취업이라는 명목으로 인신매매가 성행한다면 우리의 성장의 그늘에 대한 치부를 외국에 보여 주게되어 국가적 위신의 추락이 예상된다.

해외여행자유화조치가 민주개혁과 자주통일을 지향하는 우리들의 몸부림에 걸림돌이 되고 국민의식을 호도하고 민중의 생존권을 침해하는데 공헌(?)한다면 문제가 심각하다. 그 조치를 취한 정치권력자들은 독점재벌의 이익을 우선하는 기존의 정책방향을 하루 속히 버리고, 민족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그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방향성을 갖고 여행자유화의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개혁의지와 지도자적 품성요구



우리는 지금 뜨거웠던 지난 88년도 학원자주화투쟁을 계승하고 그 문제점을 반성하여 더욱 더 질높은 학원자주화의 내용을 내와야 할 중요한 시기에 있다. 88년도 학원자주화 투쟁은 결코 마무리 된것이 아니다. 작년 한해의 투쟁에 의해 쟁취된 구조적 틀을 기초로 우리는 더욱더 힘찬 학원자주화를 이끌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 10월에 있을 동악의 총장선거도 학원자주화의 관점에서 관심있게 살펴 보아야 한다. 대학의 총장은 대학을 대표하고, 대학의 주체인 교수·학생·직원을 이끌어갈 지도자로서 막중한 지위에있다.

그러나 88년 1월26일「교수회의 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되어 89년 교수회의에 상정, 의결되려 했던 총장선거의 초안은 학생대표측의 이의제기에의해 미루어졌다. 이 총장선거의 초안은 학원자주화와 무관한 비민주적 요소를 적잖게담고 있다. 89년10월에 있을 총장선거에 대해 교수회의가 마련한 선출방법을 살펴보면, 후보의 자격을 본교의 교수가 아닌 사람도 가능하도록했으며 교수10人이상의 추천에 의해 등록할수있도록 되어있다.

또한 교수회의에서 등록된 후보중 3인을 결정하여 이사회에 추천하면 재단 이사회에서 3인중 1인을 호선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시절 권력에 의해 학원이 유린당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중 하나였던 총장선거 제도의 비민주성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교수회칙에 나타난 총장선거 제도의 문제점은, 첫째 재단의 3인중 1인 호선 방법은 재단의 권한을 극대화한 것으로 권력의 압력이 총장선거에 직·간접적으로 개입될 소지가 많고 둘째, 추천권을 교수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대학의 주체인 직원·학생·동문의 참여가 없는 제한된 선거일 뿐이기 때문에 학원주체의 지도자가 총장이 되지 못하고 권력과 인맥에 의해 총장이 선출되는 비민주적 방식이라는 점이다.

세째, 총장선거제도를 교수회의에서 아무런 여론수렴없이 시안마련한 것은 학자투와 교수회칙의 불가분의 관계를 망각한 처사이다.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교수회의에서는 아무런 여론수렴없이 예전의 방식대로 선거방법을 결정하려 하였다. 우리에게 민주적 총장선거가 중요한 이유는 인적구조 혁신화투쟁에서 바라 보아야 하는데 인적구조혁신화 투쟁은 교과과정의 재편을 통한 흔들한 교수의 영입과 그로인한 인맥파벌의 재생산 구조를 끊어내는것과 학교행정의 수반인 총장을 개혁의지와 지도자적 품성을 지닌 민주적 방식으로 선출, 자주화를 실현해 내는 것이다.

교수·학생·직원등 대학주체의
참여로 민주적 총장 선출해야

대학의 총장은 기능인도 학자만도 아닌 학교의 주체인 교수·학생·직원의 존경을 한 몸에 받으며 동악을 지도해 나가야 하며 그 선출도 주체 모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마련해야 할 민주적 총장선거의 구체적 방법에 관하여 살펴보면 첫째, 후보의 자격에 제한이 없고 교수·직원·학생 모두의 추천으로 입후보 할 수있어야 한다. 둘째, 그 선출방법에 있어 추천된 후보에 대해 학생+직원+대학원생+교수+동문의 신임투표를 거쳐 과반수이상의 득표를얻은 후보만 입후보자로 확정하여 선거인단에 상정되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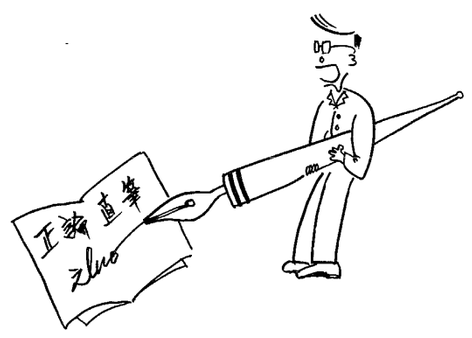
세째, 교수 전체와 직원대표 50인의 선거인단이 신임을 얻은 후보에 투표, 다수 득표자 1인을 선출하며 네째, 재단은 그 선출된 1인에 대해 이의가 있을시 재단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재투표를 청구하고 이에 의해 선거인단은 다시 재투표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상과같은 선출방법을 통하면 교수와 학생·교직원·동문·재단등 동악의 주체 모두의 지도자를 올바르게 선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올 10월로 다가선 자주동악의 민주적 총장선거를 위해 우리는 좀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자주화된 동악은 학원의 주체인 교수·학생·직원·동문 모두의 노력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등록금 동결투쟁과 교과과정 개편투쟁등「물적·인적구조화 혁신 투쟁」을 올바르게 연결하여 2학기 총장선거를 준비해야 한다. 자주화된 동악의 새날을 위해 주인된 자세로 힘차게 투쟁하자!

김 영 석 <사회대경행과>

東國漫評

임 치 성



◇더욱 예리해지겠습니다!

납입금 수납 안내

1989학년도 제1학기분 학부재학생 납입금을 아래와 같이 금융기관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수납기간 : 1989년3월14일 ~3월18일(5일간)
2. 수납은행 : 조흥은행, 국민은행 전국 각지점
3. 수납방법
   ①학교에서 우송된 고지서로 납입하여야 함
   ②장학금 수혜자중 고지서에 납입금액이 전산으로 감액처리된 학생은 수납은행 전국 각 지점에 납입할 수 있으나, 감액처리되지 않은 학생은 장학금 지급의뢰서와 함께 아래의 별도 지정수납처에서 감액수정하여 납입하여야 함

   〈별도지정 수납처〉
   서울캠퍼스 : 조흥은행 종로지점, 국민은행 충무로지점
   경주캠퍼스 : 경주캠퍼스 경리과
4. 유의사항
   ①전산처리된 납입금 고지서는 재발행이 불가능하므로 분실, 오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수납기간이 경과되면 은행에서 수납하지 않으므로 기간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③기타 문의사항은 학교 경리과로 하시기 바랍니다

1989년 3월일

총 무 처 장

모든 금융거래를 우체국 통장으로

◇온라인 전자종합통장
- 통장하나로 각종 예금거래
- 전국 대상으로 온라인 즉시 송금
- 돈을 보낼때 하고싶은 말도 전달
- 전기요금·전화요금 자동납부

◇정기예금식 환매채예금
- 최고의 수익성 : 91일 만기→년 10% 단기자금 증식에는 최고이율
- 편리한 환금성 : 중도해약시 높은 이자 지급
- 안전한 저축수단 : 5만원이상 무제한 예치 가능

◇자유저축예금
- 입·출금이 자유로우며 6개월이상 예치시 연11%의 이자 지급

◇새복지보험
- 최고의 공신력과 안전성
- 간편한 가입과 단기저축성
- 사고발생시 보험혜택은 순전히 보너스임

(3년만기35세기준)

구 분	월 납	세금공제	만기지급액	실수익율
새복지보험	24,400	없 음	1,000,000	13.8%
민영 보험	25,230	〃	1,000,000	10.1%

※이용 문의전화 : 273-1005, 273-6507

동국대학교 우체국

경주캠퍼스 설립10주년기념 금장장학회 기금 접수중!

경주캠퍼스 설립10주년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우수한 신입생의 유치및 재학생의 향학열을 고취시키기 위해 추진중인 금장장학회의 장학기금이 교직원·동문들의 호응을 받아 계속 답지하고 있읍니다.

아직까지 이 장학사업에 동참하지 못한 분께서도 동국을 사랑하는 높으신 뜻으로 각별하신 협조와 성원있으시길 바랍니다.

경주캠퍼스 학생처 장학과

전화(0561)2—0131~9交228, 229

大學奬學生(新入生)募集
(學軍·學士士官)

- 募集人員 : ○○○○名
- 志願資格 : 4年制大學 新入生 (69年1月1日~73年1月1日出生者)
- 志願書交付 및 接受
  - 期 間 : 89年2月22日~3月25日 (學軍團本部)
  - 具備書類

1次 (志願時)	2次 (身檢檢查時)
· 志願書 및 誓約書… 1部 · 大學入學成績證明書… 1部 · 寫 眞 (4×5㎝) … 1枚	· 戶籍 및 住民登錄謄本…各 2部 · 財政保證書·納稅 및 印鑑證明書 …各 1部 · 寫眞 (4×5㎝) 3 枚

- 選拔節次
  - 1 次 : 書類銓衡 (入學成績), 面接, 體力檢定
  - 2 次 : 身體檢查
- 合格者發表 : 89月7月3日
- 特 典
  - 學軍 및 學士士官 候補生으로 自動 選拔
  - 大學卒業時까지 登錄金 支給
  - 希望 및 專攻學科 考慮 兵科分類 補職 活用
  - 轉役時 職業輔導 實施 (大企業體 優待選拔 및 處遇)

제112학군단

제2회 전국대학(원)생 논문현상모집

한미은행이 창립6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올해에도 전국대학생과 대학원생 논문을 현상모집합니다.
1983년3월16일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일익을 담당하고자 설립된 저희 한미은행은 공익기관으로서 사회적으로 책임을 다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각종 학술, 예술, 문화, 장학사업에 남다른 후원을 하고 있읍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현상논문모집은 학생들의 학술연마와 참신한 이론정립의 계기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것이므로, 의욕적이고 역량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논제 : 가. 나. 다 중 택일
   가. 금융산업의 개편방향과 시중은행의 진로
   나. 우리나라 산업구조 고도화의 현황과 과제
   다. 전환기에 선 우리나라 대외무역의 과제와 전망
2. 응모요령
   가. 응모자격 : 전국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나. 원고매수 :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 (10매내외의 요약문 1부 첨부요)
   다. 응모마감 : 1989. 6. 15 (당일자 소인분도 유효)
   라. 당선작발표 : 개별통보
   마. 심 사 : 권위있는 중진교수
   바. 유의사항
      1) 논문제출시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명기하고 재학증명서 1통을 첨부할것 (학생증 사본도 가능)
      2) 응모 논문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조사부 조사담당자 앞으로 문의바람. (전화 : 739-8800, 교환235, 238)
   사. 보 낼 곳 : 우편번호110-160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평동 1번지 (한미빌딩) (주) 한미은행 기획조사부 조사담당자 앞
3. 상금 및 시상
   가. 상금 : 1) 최우수작 (1편) — 300만원과 상패
   2) 우 수 작 (2편) — 각 100만원과 상패
   3) 가 작 (3편) — 각 50만원과 상패
   4) 입 선 (5편) — 각 20만원과 상패
   나. 시상 : 당선자에 대한 시상 일시 및 장소는 추후 개별 통보함.
4. 특 전
   최우수작 및 우수작으로 당선된 학생이 졸업후 당행 입행을 원할 경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입행에 특전을 부여함.

참신한 시중은행 한미은행

고학력화에 따른 사회병리 考察



이 상 현
<사회과학대교수 · 경찰행정>

Ⅰ. 머리말

近代 大學은 12세기 중세유럽에서 시작되었다. 그당시는 카톨릭만이 보편적인 것으로 되어大學學問은 폐쇄된 지식체계에 지배되었고 전통으로 삼고있는 학문은 이단시되고 또 합리적으로 인식된 자연과학은 취급되어 있지않았다. 그러나 16세기 이후의 사회변동 즉 종교개혁, 민주국가의 형성 등의 속에서 대학은변질이 생겼다. 결국 대학은 폐쇄적인 지식체계의 장소가 아니라 개방적인 지식창조의 장으로 되었다.

1810년의 베린대학은 宗敎와傳統의 제약없는 近代科學에 대표되는『認合理性』의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제도로 되었다.

19세기 초기 대학은 産業社會에 적응하는 近代 大學으로 변해 社會發展의 기초가 되는 新知識, 技術 創造의 기초가 되었다. 또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갖은 人材나 能力있는 엘리트의 육성공급의 원천으로 大學은 기능을 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大學은 사람들의 屬性 (특정신분) 보다는 業績原理의 지배를 重視, 엄밀하고 공정한 知的 능력의평가에 의하여 入學을 허가하였다.

우리나라는 民主主義의 원칙하에 國家建設의 일환으로 교육제도의 개혁이 이루어 졌다. 그內容은 의무교육의 연장및 교육기회의 평등화, 대학의 新設및 舊初級大學의 승격등으로 현재 4년제 대학이 104개 대학으로 이중 61개가 종합대학으로 되어있다. 大學의 量的 증대의 주요인은 經濟的 성장으로 高學歷 취득기회의 확대, 社會의 情報化및 産業化, 職業的 요인으로서의 學歷主義 등이라 하겠다.

Ⅱ. 고학력화와 우리의 현실

(1)고학력 취득기회의 확대

고도성장에 따라서 국민소득수준이 크게 향상되어 그에 수반하여 평준화가 진행되었고 이로인하여 진학하는 것과 진학하지 못하는 것이 가정의 경제수준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않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학교육을 받을 가능성을 얻게됨과 동시에 고학력화의 길은 개인의 권리를 넘어 지금은 의무화로 변하였다고 생각되어 진다. 또한 大學設置基準의 개정과 대학창설의 완화에 의하여 대학이 크게 증설된 관계로 대학에의 진학율도 증가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고교졸업자의 인구에 비한다면 대학의 인구는 너무 적은 것이다. 고등교육 인구의 증대를 실질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것은 국공립대학에 비하여 교육조건이 좋지 않은 사립대학인 것이다.

이같은 사립대학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는 사립대학에 경상비보조금으로 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교육의 대중화가 진행됨에 따라 많은 학교차를 낳아 사회적 평가가 높은 서울대학이나 서울의 전등있는 사립대학 등에 우수한 지원자가 집중되어 입시경쟁의 격화를 일으키고 있다.

(2)정보의 사회화

오늘날 고도의 정보, 체계적인 과학이론 및 기술과 지식이 결여되고서는 국제적 국내적으로도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이다. 다시말해 유별나게 고도의 정보를 알고 있는 자만이 엘리트의 역할을 할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식이나 기술의 전달기관으로서의 대학은 앞으로도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3)직업및 사회이동요인으로서의 학력주의

전문직의 발달 그리고 사회조직 (관료제) 의 발달 때문에 앞으로도 대학이라고 하는 형식징호를 필요로 하는 직업이나 지위가 증대될 것이다. 지적 전문직의 특징의 하나는 직업활동의 기초로서 조직적 과학의 필요성이다. 취업자격에 일정과학을 습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요구된다. 즉 대학졸업자라는 증명서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대학의 필요성을더욱 높이게 하는 이유가 되는것이며 이것이 고학력의 병리인것이다.

Ⅲ. 대학기능의 재검토

대학의 기능은 진리탐구와 지식창조에 관한 기능, 사회적 비판기능, 고도의 전문교육기능, 교양교육기능, 사회적 지위나 역할의 분배기능 등이라 하겠다.

이러한 제기능은 자유로운 진리탐구를 가능케하는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에 의하여 운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많은 대학은 위의 기능을 다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학은 일본의 대학을 모델로 한 경성제국대학이 최초의 대학이고 따라서 몇개의 사립대학이 신설되었다. 해방이후 우리나라는 근대국가로서의 길을 밟고 있었지만 그러나 아무래도 구미제국에 비교하여 후진국인 관계로 조급하게 산업엘리트의 양성을 필요로 했다.

그 엘리트의 기본적 조건은 새로운 고도의 전문적 지식, 기술을 소유하는 것이었다. 이와같은 특정대학은 고도의 전문교육의 기능을 통하여, 더욱 고도의 교양을배양하여 국가장래의 지도적, 지배적인 지위에 취임하는 교육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그당시의 사회는 대학에의 의존도가 높았던 이유로써 업적원리에 의하여 선발된 것에 두고있다. 이 특정대학에의 의존도가강화되고 확대된 것이 오늘날의「학력사회」「특정대학」「입시경쟁」의 모순을 낳게 했다.

현재의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전반적으로 업적원리가 지배적이며 그로인한 현대교육의 대표적인 병리현상인 입시경쟁이 생겼다. 특히 인간형성의 중요한 시기에 고등학교의 교육은 대입시의 지육만 중요시되어 기타의 인간형의 중요한 요인인 덕육, 정서교육, 체육이 무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모든 대학이 평등하게 엘리트 양성기능의 역할을 완수하고있다고는 말할수 없다. 이와같이 대학간에는 전통적 교육수준, 사회적위신등에서 잠재적, 현재적인 격차가있어 엘리트 양성에의 큰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Ⅳ. 대학의 대중화에 수반되는 제문제

산업사회가 고도화하면 특정학력을 일용의 직접자격요건으로하기어려운 직업이 생긴다. 그러나 다른면에서는 학력은 반드시 특정직무의 수행능력을 직접증명하는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큰비중을 점하는 직업이있다. 사회의 상층부에 속하는 직업의 대다수는 고학력을 필요조건으로하는 직업이다.

이에대하여 중층이하의 직업의 대다수는 직업수행능력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고학력을 필요로하고 있지않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학력개방적인 직업 즉 써비스업 판매적 직업등에 많은 고학력자가 취업하고있다. 대학의 대중화가 앞선 미국, 캐나다, 일본 등에서는 대학졸업자중에서 전문, 기술, 관리의 각 직업에 취업하고 있는 white collar 는 50%정도에 불과하며, 생산공정등에서 일하는 blue collar 직업에 취업하고 있는 자가 20%가깝게 달하고 있는것이 밝혀져있다. 결국 고학력의효용이 소실하여 단순한 형태학로되어 개인적, 사회적으로도 손실을 입은 결과가 되고있다.

교육기회의 균등화에의하여 여성에 있어서도 남성과 대등하게 고학력지향이 매년 높아져 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고학력 여성이 직업을 갖는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보다 오히려 체면을 앞세우기 때문인것 같다.

남성의 고학력의 경우에는 전공학과와 직종과의 사이에 강한 상호관련성이 있어 각 전공분야는 각각 특유의 직종을 갖고 있지만 여성 고학력자는 자기의 전공과는 상호관련성이 약해 주된 활동분야는 교육직이나 보건위생관계에 관한 직업에 한정되어있는 것은 주목해야 할 사실이다.

여성은 남성과 다른 취업구조 pattern을 나타내 새로운 변화의 선취를 하는것' 보다는 평가가 정해진 기성pattern의 취득이라는형태을 나타내고 있다. 그중에도 가정의 기능과 같은계통에 속하는 직종이나 가정기능을 담당하는 것과 양립하기 쉬운 조건에 있는 직종에 많이 취업되고 있다.

오늘의 고학력여성은 자기의현실에 맞는 주체적 조건보다는여성일반에 대하여 주어진 사회적 통념에 따라 취업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여성자신의 자립성지향의 약점에도 문제가 있다.

앞으로 고학력자의 대량생산이 진행됨에 따라 학력과 직업내용 또는 직무수행능력과의 관련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채로 더욱 많은 직업이 고학력화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고학력에 대한 사회의 병리현상을 예시해 두고자 한다.

(1)박사과정수료자의 취업상황

최고의 연구교육기관인 대학원의 박사과정수료자의 취업율에 있어서도 성차별이 보여진다. 대학진학율이 향상됨에 따라서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의 진학율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로는 대학원박사과정의 수료자에 있어서 자의 이동과정은 반드시 본인의 정당한 업적평가가 실시되고 있다고는 할수 없는 것이 실정일 것이다. 업적과 별로 관계없는 유리한 위치가 주어지는「학교차별주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 나라의 대기업체 등의 조직속에 존재하고 있다. 이것이 채용, 昇進時學歷, 特定學校學歷을 중요시하여 이용하고 있는 것이며 一種의 차별이며 사회적인 공정원칙에 反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로 채용원칙은 학교교육의 업적원리의 지배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것은 學歷獲得은 업적 및 학력에 의한 합리적인 선발이며 학력에 의한 평가는 公正하다는 견해에 근거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學校를 기준으로하여 人材選拔機構가 형성하게 된다. 이 例로서 指定校制도 채용자측이 지정한 特定大學의 학생에게만 採用試驗의 기회를 준다.

취직에 유리한 사회적 평가가 높은 지정학교에 지원서가 집중한 결과 지정학교에 해당하는 대학은 더욱더 유리한 인재선발기구로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대학본래의 기능을 상실시켜 취업을 위한 예비교화로 전락되어 진다. 이것이 우리 나라의 대다수대학의 병리인 것이다. 이와 같이 대학이 처해있는 사회적 상황하에서는 필연적으로 대중화, 질적 저하가 발생한다. 그결과 대학의 본래기능의 하나인『진리탐구 와 지식의 창조에 관한 연구기관』은 대학원의 역할로 이행되고 있다. 오늘날 우리의 교육제도는 확실히 민주화 하였지만 대학은 보통교육화로 되어 버렸다. 많은 대학이 각지방에 설치되어 전국적으로 고등교육의 기회평등화를 가져오게 했다.

그리하여 양적 확대에 수반하여 질적인 면이 문제화되고 있다. 반면에 현실로는 대학진학 희망자의 전원을 입학허가를 하고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기회의 평등적인 확대가 되어있지 않다.

Ⅴ. 맺음말

대학은 사회정보화에서의 정치, 경제논리에 종속됨이 없이 교육이념에 따라서 인재를 양성하여 그것에 적합한 인간을 선별, 교육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이와같이 목적 합리성과 가치적 합리성을 갖고 있으면서 인재의 선별, 양성을 할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기능은 사회적 정세에 의하여 어느정도의 변화는 있겠지만 계속될 것이다. 사회적 추세로서「학력의 가치」가 부정되어 가고있는 현재에 있어서 어느 한도에서 학력의 희소성의 감소경향이 보인다. 그러나 오늘날 대학이 갖는 합리적 인재선별기능은 오히려 대학사회를 유지하는 일에 더 힘쓰고 있다. 새로운 제도중에서 유명 대학졸업이나 대학원졸업이라는 형으로 그것은 재생산되어 계속될 것이다.

고학력의 대량생산, 고학력과 직업연결의 애매화, 일시편중교육이라는 문제는 교육분야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거듭 강조해 두고 싶다. 고학력화의 병리는 오늘의 우리 사회구조 전반에 뿌리깊게 얽혀 있다는 것을 항상 유념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전반적인 고학력화로 대졸자는 물론 박사과정을 마치고도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기이한 현상을 빚어내고 있다.

학력 사회따른 대학차별화 "심각"
대학,취업위한 예비 학교로 전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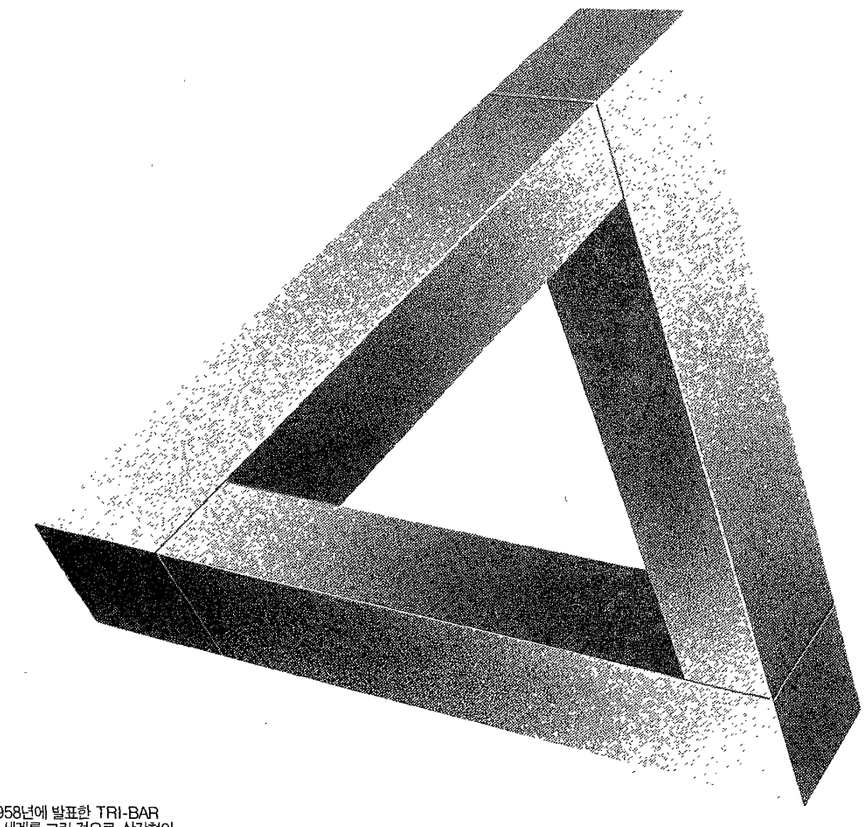
투고를 기다립니다

본사 학술부에서는 교수및 학생(대학원생포함) 여러분의 논문 투고를 기다리고 있읍니다.

모든 동국인이 공감할 수 있는 올바른 인식과 학구적 노력을 담은 연구 결실이 모여 우리 동국의 학풍 혁신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주제는 전공분야는 물론 관심있는 모든 분야로 2백자 원고지 37매 분량이며,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를 지급합니다.

<학 술 부>



4차원의 삼각형
펜로스(R Penrose)가 1958년에 발표한 TRI-BAR 2차원의 평면에 3차원의 세계를 그린 것으로, 삼각형의 각 부분에서는 오류를 발견할 수 없으나 실제로는 만들 수 없고 4차원에서나 가능한 삼각형이다.

"무한대의 창의력"

진보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효성—
그 출발점은 바로 무한한 창의력입니다.

현실세계에서는 만들 수 없는 4차원의 입체—
하지만, 효성은 불가능을 불가능으로 덮어두지 않습니다.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이에 도전합니다.
풍요로운 미래를 보다 앞당기기 위해선
고여있는 물에 안주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효성의 끊임없는 도전은 불가능을 가능케하며
진보와 발전을 가속시키고 있읍니다.
섬유, 화학, 전자, 중공업, 타이어, 건설, 무역 등
여러분야에서 두루 창의력을 발휘하고 있는 효성—
이제 효성의 창의력은 컴퓨터,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뉴미디어, 신소재 등 새로운 첨단분야를 열어가고 있읍니다.
무한대의 창의력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효성을 주목해 주십시오.

曉星그룹

●曉星物産 ●東洋나이론 ●東洋폴리에스터 ●東洋染工 ●曉星重工業 ●曉星바스프 ●曉星나스 ●曉星히다찌데이타시스템 ●曉星B&H ●曉星드라이비트 ●韓国엔지니어링플라스틱 ●東光化成 ●韓国타이어 ●韓国電池 ●大田皮革 ●東星 ●大星 ●曉星金属 ●曉星機械 ●東星開発

"대중운동과 대체권력으로서 의미 커"

——통일 전선에 대하여

宣 知 行
<자유기고가>

1. 머리말

변혁운동의 주체역량 강화와 주력을 보호하는 부대를 형성하며 광범위한 각계 각층의 진보적 세력을 결집시키기 위한 통일전선은 현시기 우리에게 제기되는 가장 중요하고도 긴박한 문제인지 모른다。통일전선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변혁운동이 대중운동으로 그리고 실제적인 대체권력으로서 볼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본글에서는 통일전선이 제기된 역사적 배경과 인민민주주의 혁명에서의 통일전선 그리고 현시기 통일전선운동으로 전민련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결론에 대신하여 통일전선운동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과 방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 통일전선의 제기

통일전선은 처음에는 사회주의 혁명에 광범위한 대중을 획득하고 대중권력 기관인 소비에트를 강화시키기 위한 전술적 방침으로 제기되었다。이것은 부분적·경제적 요구를 위한 노동자계급의 행동통일을 통해서 노동자계급의 다수를 소비에트사회주의혁명으로 획득하고 이들을 무장시키며 노동자계급에 대한 소비에트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술적 방침이었다。

그러나 1930년대 전반기의 파시즘의 대두라는 역사적 조건의 변화는 통일전선에 대한 재조명을 요구했다。파시즘의 형성은 단순한 자본주의 국가내의 정권교체가 아니었다。그것은 부르조아 민주주의체제에 대신하여 노골적인 폭력과 무력에 기초한 반혁명적인 새로운 지배형태의 성립을 의미했다。파시즘 체제하에서는 한편으로는 파시즘과 반동부르조아지로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한 각계각층의 민주세력으로 계급배치의 양극화가 급격히 일어난다。

부르조아민주주의체제 하에서나 그 존립근거가 유지되는 개량주의적 노동자당과 소부르조아 정당이 급격히 파산하여 그들의 노동자계급에 대한 영향력이 급속히 감소되는 반면 혁명적 노동자당의 영향력은 증대된다。그리고 민주주의 수호와 쟁취를 둘러싼 파시즘과 광범위한 각계각층 민주세력이 대립하게 된다。계급배치의 양극화는 노동자계급의 행동통일 뿐만아니라 광범위한 근로대중—농민소부르조아 인텔리 등—과 노동자계급의 행동통일의 가능성을 높힌다。이러한 결과 파시즘의 대두라는 역사적 정세의 변화는 노동자계급의 변혁운동에 새로운 전략·전술 방침을 제기하게 된다。

이에대한 공산주의자들의 응답이 「코민테른 제7회 대회」에서 채택된 반파시즘 노동자 통일전선과 이에 기초한 광범위한 각계각층의 진보적 부분을 망라한 인민전선 방침이었고 또 이에따른 통일전선 정부 또는 인민전선정부방침이었다。

반파시즘 통일전선 인민전선방침은 노동자계급의 변혁운동에있어 최대의 적인 파시즘과 반동세력에 대항하여 한편으로는 노동자계급의 행동통일과 단결을 이루고 또 한편으로는 파시즘에 대립하는 광범위한 각계각층의 민주세력을 반파시즘 전선에 결집시켜 파시즘과 반동 부르조아세력을 철저히 분쇄하고 반파시즘 통일전선정부를 수립하려는 방침이었다。

이때 통일전선정부는 파시즘과 반동에 반대하여 이에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정부로 또한,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활동을 제한하지 않고 민주주의적 변혁정책뿐만 아니라 정세에 적합한 일정한 근본적인 혁명정책—생산과 은행의 통제, 경찰의해산, 경찰에대신한 노동자계급의 무장, 민병설치 등—까지도 수행하는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전위와 반파시즘 당들의 협력기관으로 규정되었다。

「코민테른 제7회 대회」에서의 통일전선방침은 첫째 파시즘과 자본의 공세를 격퇴, 파시즘과 반동의 철저한 분쇄, 일반민주주의의 옹호와 쟁취 등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한 과제들의 철저한 수행이 사회주의혁명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전제로 다루어지고 있었다。뿐만아니라 이는 당면한 변혁의 가장 핵심적 과제로 제기되어있다。

이에따라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과 결합되게 되었다。둘째 이때문에 반파시즘 통일전선은 파시즘과 반동세력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위치지워져 혁명의 과제달성에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담보물로서 위치지워지고있다。세째 통일전선정부가 후에 소비에트권력에 의해 분쇄되어야 할 단순한 과도기적 정부라는 측면보다는 일정한 혁명적 조치를 수반하는 프롤레타리아독재에 근접한 일형태로서 위치지워지는 측면이 보다 지배적이었다。

과 반동세력의 공세정도 등이 나라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각기 복잡한 정세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반파시즘 통일전선 인민전선방침의 수행은 나라마다 형태와 내용을 달리하면서 수행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7회 대회 이후의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중심은 자연히 코민테른의 국제적 활동에서 각국 공산당과 노동계급의 창조적 활동으로 옮겨지게 된다。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제2차 세계대전이후 인민민주주의 변혁론이 형성되게 된 직접적 배경이었다。

「코민테른 7회대회」의 반파시즘 통일전선·인민전선방침을 각국의 조건에 따라 발전시킨 최초의 시도는 유럽에서보다 동아시아의 민족해방혁명에서 먼저 있었다。중국의 「제2차 국공합작」과 「항일민족통일전선」 그리고 19



◇통일전선은 인민민주주의 수립을 위한 투쟁의 기초가 된다。

노동자계급이 지도하는 광범위한 인민권력 형태
대중권력기관 강화키 위한 전술방침으로 제기돼

이러한 새로운 내용은 통일전선이 전술적방침 뿐만아니라 변혁에 있어 전략적 의의를 가지는 방침으로 새롭게 조명되는것이었다。때문에 「코민테른 제7회 대회」에서의 반파시즘 통일전선 인민전선방침의 제기는 공산주의 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점하는 것이었다。이방침의 제기는 공산주의운동의 변혁론과 전략·전술의 발전에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또한 이것은 2차대전 이후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을 형성시키는 중요한 이론적 기초가 된다。

이때부터 각국의 혁명운동에 있어 각 나라마다의 구체적이고 특수한 조건에 대한 세심한 고려와 각국 공산당의 창조적 활동이 강조되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이는 파시즘 대두 이후 각국의 정치정세의 진전과 변혁운동의 성숙도, 계급배치의 변동과 중간계층의 정치적 동향, 파시즘 운동에 대한 불공정한 행사를 자행하는 현정권으로부터 숱한 시련을 겪어왔다。그 예로 지난달 21일에는 2백여명의 구사대원들이 식칼과 쇠파이프등으로 노조원들을 습격하여 60여명이 부상당하고 이중 몇몇 조합원은 머리·가슴등을 칼에 찔려 중상을 입는 살인테러를 당하기도 하였다。

임금인상투쟁시기에 발맞추어 이를 억누르는 강경탄압 일색으로 나오는 현대재벌과 현정권은 복수노조금지등 노동운동탄압의 근거가 되고있는 노동관계법 독소조항을 이용, 어용노조시비를 불러일으켜 노동자들의 단결력을 희석화시키려는 술책도 펴나가고있다。

현대를 비롯한 노동자들의 계속적인 투쟁은 단순한 노동자만의 문제뿐만아니라 변혁사회의 주체로서 합법적인 노동자대중조직의 구성을 통하여 노동대중의 요구와 저항을 하나로 일으켜세워 제국주의와 독점자본·독재정권으로부터 민족자주를 실현키위한 활동으로 볼 수 있을것이다。

<지동철記者>

식 칼 테 러



『성명 : 정주영, 나이 : 76세 가량, 범죄명 : 살인미수, 채불임금사기。위 사람은 상당히 위험한…』 이는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이 노조원들과의 면담및 협상에 응하지 않자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서울결사대」가 현대그룹 본관앞에 붙인 현상수배공고문으로써, 국내 대표적 독점재벌인 현대의 노사분규의 일면을엿볼 수 있다。

지난12일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있은 「현대재벌 폭력테러규탄 국민대회」는 전국 노동악법 개정및 임금인상투쟁본부등 3개 재야단체주최로 노동자, 시민, 학생등 1만여명이 모인가운데 살인폭력테러를 자행한 현대및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모든 세력들을 규탄하고 이에 공동대응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전면파업 90여일을 넘어서고 있는 현대중공업은 회사측의 금권·구사대를 동원한 노조깨부수기획책과 공권력이라는 명목하에 빈번하게 개입하며 노동

3.현 시기통일전선 운동

건국 이후 최대규모의 운동단체로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이하 전민련) 이 지난1월21일 결성되었다。전민련은 20개지역 및 부문통합단체로 구성 이에 포함된 개별운동단체 수는 2백여개가 넘는것으로 추산된다。전민련 발족이 갖는 의의는 먼저 명망가 중심의 운동을 극복하고 대중의 조직화와 민족민주운동의 민중적 토대 강화에 중심을 두고 대중적으로 반제반파쇼전선을 한층 강화시켜갈 것이라는 점에 있다。

둘째는 지난시기 민족민주운동의 분열에 종지부를 찍고 모든 부문에 있어서 통일단결의 기운을 높일 것이라는 점이다。그러나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전민련이 풀어가야 할 문제는 많다。명실상부한 연합체적 성격을 갖기 위해서는 내부의 끊임없는 사상투쟁과 사상통일의 과정이 필요하다。그리고 명실상부한 통일전선적 조직체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 참여하지 않고 있는 각 부문운동과 중산층운동부문을 어떻게 포용해 나갈것인가。또한 상이한 계급적 계층적 입장속에서 어떻게 통일된 입장을 정리해 낼 것인가。이런 것들이 앞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투쟁을 통해서 조직을 건설해 나간다는 원칙에 확고히 설때 제반의 좌우편향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현 시기 전민련의 성격과 임무는 무엇인가 첫째 전민련은 계급동맹의 한 형태이다。

현하의 제기되는 투쟁은 그 대상이 외세와 군부독재이므로 통일전선의 형태는 반외세 반군부독재투쟁전선으로 가시화된다。이것이 아무리 낮은 수준이라 할지라도 계급동맹의 한 형태이다。

둘째는 전민련은 정치투쟁의 기관이다。전민련의 확충과정은 전투적인 통일, 대중적인 통일의 원칙에 기초하여 공동투쟁을 통해서 조직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세째는 전민련은 대체권력의 기관이다。이 부분에 관한 많은 회의가 존재하고 있다。그러나 민중의 정치조직인 한, 권력의지를 배제할수 없다。모든 정치조직은 정치권력에의 지향을 갖는다。물론 전민련에 참가하는 조직들, 개인들의 주체적 조건을 염두해두어야 한다。그러나 대중조직이 참여한다고 해서 전민련의 강령을 대중조직수준으로 할 필요는 없다。그것은 대중조직이 참여한다고 해서 전민련이 정치조직이기를 그만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과 같은 이치이다。민중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는 수권능력의 확보를 의미한다。

이것은 바로 전민련이 전략적 의의를 지니고 있고 통일전선의 확대 강화라는 현시기 운동의임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4. 통·전에서 견지해야할 원칙과 방도

앞에서 전민련발족의 의의와앞으로의 과제 그리고 성격과 임무에 대해서 살펴보았다。여기에서는 통일전선에서 견지해야할 일반적 원칙과 방도를 살펴보겠다。이것은 앞으로 전민련이 견지해야할 원칙과 방도일 수 있을 것이다。

통일전선운동은 이해관계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 계급·계층들 사이의 연합전선이므로 통일전선을 올바르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원칙과 방법을 견지해야 한다。첫째는 노동자계급과 농민의 동맹을 강화하여 노농동맹을 정치 사회적 기초로 한 통일전선을 형성해야 한다。노동자와 농민은 신식민지사회에서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변혁에 가장 절실한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광범위한 사회계급 계층 세력들을 포괄하는 통일전선은 이들을 정치·사회적 기초로 해야만 투쟁의 성과가 근로대중에게 귀속될 수 있다。

둘째는 단결할수 있는 모든 역량과 단결하는 원칙을 가져야 한다。통일전선이 사회적 위치와 계급적 입장 정견과 신앙이 다른 광범위한 대중과 여러당파들을 공동의 적에 대한 투쟁에 결집시키는 것이라 할때, 공동의적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통일전선 속으로 인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세째는 통일전선 내에서 전위조직이 독자성과 지도성을 확고히 보장해야 한다。이 문제는 현재 우리의 실정속에서는 논란이 많으나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은 계속되리라 생각된다。일단 통일전선 내에서 전위조직의 독자성을 고수하고 지도적 역할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조직 자체를 튼튼히 꾸리고 대중속에서 정치활동을 강화해야 한다。통일전선 내에서 전위조직의 독자성을 고수한다는 것은 통일전선에 망라되는 계급계층에 대해 독선적 태도를 취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네째 통일전선 형성에서 적들과는 비타협적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통일전선은 혁명의 적들을 고립시키고 타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쟁의 무기이므로 적의 요소를 배제하도록 경계하고 비타협적으로 투쟁해야 한다。지금까지는 통일전선 형성의 원칙을 살펴보았다。다음으로 이를 운용하기 위한 방도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면 첫째는 하층 통일전선을 기본으로 하고 상층 통일전선을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한다。

이것은 통일전선의 형성이 광범위한 대중을 운동에 집결시키는 운동의 대중화를 실현하는데 있다고 하는 근본목적에 부합되는 것이다。여기서 하층 통일전선이 기본으로 되는 이유는 하층 통일전선이 튼튼하지 않으면 상층의 동요를 막아내기 힘들고 상층 통일전선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그러나 상층 통일전선의 의미도 중요하므로 그 배합은 구체적 정세에 따라 고려되어야 한다。둘째는 낮은 형태의 공동투쟁으로부터 점차 높은 형태의 공동투쟁으로 나아가고 부분적 연합으로 부터 전면적 연합을 실현해가야 한다。

세째는 통일전선 내에서 단결과 투쟁을 올바르게 결합해야한다。이것은 통일전선을 강화하는 중요한 방도이다。

결론적으로 통일전선의 의미는 현시기 우리 운동의 질적비약이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문제이다。통일전선은 단순한 전술적고려의 대상이 아니다。이것은 변혁운동의 결정적 승리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대중을 통일전선속에서 올바른 계급적 사상과 민주주의적 훈련을 거치게 한다。또한 통일전선의 강화와 발전은 변혁운동의 과정속에서 최소한의 폭력을 수반한 승리를가능하게 해주는 결정적 계기가 되는 것이다。



농민권익 위한 통일조직 태동

——— 전국 농민운동연합 결성의의와 향후과제

지난 3월1일 민족해방운동 70돌이 되는 이날 오후 1시 「전국농민운동연합」 (이하 전농련) 이 각 군단위로 3명씩 9개도 75개군의 농민대표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 카톨릭농민회관에서 결성식을 가졌다。

「전농련」은 해방직후 전국13개도의 도연맹 군단위의 188개 지부, 면단위의 1745개 지부등 총 330만명의 회원을 갖고 활동하던 「전국농민조합총연맹」(전농) 이후 최대의 전국적 농민운동조직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수 있다。

「전농련」의 결성은 농민운동단체의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농민운동이 보다 실질적인 차원에서 조직화되고 농민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농민운동연대의 틀을 마련하게 되는것이다。

이는 기존의 농민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온 「한국카톨릭농민회」(가농) 나 (한국기독교농민회」 (기농) 가 기구중심적이고 종교적 형식이 지배하는 써클수준의 활동가 조직으로서의 한계를 표방하여 자주적인 대중조직화의 필요성을 절감한데도 그 원인을 찾을수 있다。

이러한 농민운동 통합작업이 추진된 근본원인으로는 공업일변도의 농민소외정책, 즉 농민의 생존권이 날로 악화된데 있다하겠다。

또한 그동안의 농가부채, 저농산물가격정책, 미국의 농축산물수입개방확대, 농지세수탈등 농민생존이 어려워지고 이러한 잘못된 농정은 농민 스스로의 단결투쟁으로서만이 쟁취할 수 있는 과제임을 농민스스로가 인식하게된 까닭이기도 하다。이러한 상황하에서 농민들의 불만이 가장 심하게 표출된 것은 지난해의농축산물 수입개방조치에 반대하는 시위였고, 이는 83년~85년의 소값파동, 86·87년의 농축산물파동, 88년의 고추파동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농산물 수입과 관련한 농민생존과 결부된 직접적 문제였던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따라서 「전농련」의 주요사업은 반독재·반파쇼·반제민족민주투쟁을 통한 농민및 기층민중의 생존권 보장을 중심에 두고 있다。

이의 좋은 예는 지난한해 수입개방에 따른 소값피해보상운동·고추피해보상운동·수세폐지운동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투쟁형태속에서 농민운동을 조직화하고 농지세시정운동, 농협민주화운동, 토지무상반환투쟁으로 질적발전을이루며 농민통합의 전기를 이룩함으로써 잘 보여주고 있다。

「전농련」의 결성과정을 보면 「가농」과 「기농」의 기존의 두단체와 전국30여 지역에서 독자적 농민운동을 해온 자주농민단체가 포함되었다。이러한 농민단체의 통합과정을 살펴보면 지난해 10월 31일 「전국농민협회」 「가농」 「기농」 등의 실질적 농민단체들이 통합하여 전국농민단체협의회를 구성하고, 다음날인 11월1일 농민운동이 통일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전농련」 결성의 첫 시발점이 된 전국농민대표자회의가 열리게 된다。또한, 이것은 2차례의 전국농민대표자회의, 6차례의 준비소위원회, 2차례의 준비위원회 모임을 거치면서 「전농련」 결성의 산파역을 담당한다。



농민운동단체의 통합조직인 「전국농민운동연합」 결성식이 지난1일 대전 카톨릭 농민회관에서 있었다。

농민운동,실천적 조직화로 생존권 쟁취

수입개방저지·토지무상반환 투쟁전개

다。반면 기존의 실질적 통 연합체로 출범하게 된다。

이러한 과도기적 연합체로서의 결성에도 불구하고 「전농련」은 밑으로부터의 조직통일을 적극 추동하고있다。

이는 1군1대표의「군단위」 조직을 구심으로, 한 지역에 여려 농민조직이 있을때 조직의 통일을 보장하고 산하 각도에 도농련을 결성, 그 대표권을 가지고 대표자회의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통일체로의 유도를 담보하고 있다。한편 조직적위상을 살펴보면 첫째 농민운동조직의 전국적 통일을 추진하면서 전국적 통일조직의 건설을 목표로 하는 연합체라는 점, 둘째 농민대중의 당면투쟁및 자주적 대중조직화를 지원·강화하기 위한 농민운동의 「전국적연합체」의 성격임을 알수 있다。

「전농련」의 주요사업내용은 농민대중의 드높은 자주의식과 투쟁적진출을 바탕으로 △농민생존권투쟁과 법제도 개선투쟁을 통해 다양한 대중투쟁전선을 확장하여 반미·반독재투쟁으로 집중할것。

△군·도단위의 자주적 농민대중조직건설과 통일단결에 총력을 경주하여 전국단일조직건설을 앞당길것。△자주적 민주농협쟁취, 수입개방저지및 농산물제값받기·토지무상반환투쟁을 중점과제로 수세폐지·농민부채해결·의료보험개혁등 일상과제와 결합·집중시킬것。

△수입개방저지투쟁을 통한 농민생존권투쟁을 농민대중의 자주의식고취와 반미자주화투쟁의 내용으로 발전시킬것。

△국가보안법·사회안전법·집시법·농민관계악법·노동악법·교육법등 독재의 무기로 사용되어온 모든 악법을 개정철폐하기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전농련」은 자체기관지인 농민연합신문을 창간하고 기관지의 통일적발행, 통일적 교육사업의 추진, 공동투쟁의 기획등 일상적 대중사업을 전국단위에서 통일적으로 집행해 나갈 예정으로, 단일화된 조직기반내에서 농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농민지도자를 뽑아 자체훈련하는등 꾸준히 조직역량을 배양할 것으로 예측돼 앞으로 노·학세력과 함께 사회변혁의 한 주체로 서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1989년 2월1일의 「민중생존권쟁취 전북도민대회」나 2월13일의 「전국수세폐지및 고추전량수매쟁취를위한 전국농민여의도대회」 등을 전농련이 주도한 역량을 감안해 볼때 농민운동의 대중적확산및 조직적진전의 성과물을 통해 일단은 긍정적 평가를 내릴수 있을것이다。

아뭏든 이번 「전농련」의 출범은 가열차게 전개되온 대중운동의 확산과 기층민중의 생존권투쟁이 고양되고 있는 현단계에서 변혁의 주체로 서게되었고 이는 고무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져야 할것이다。하지만 「전농련」이 우선 연합체로서의 통합에 그 결성의의를 가진다면 향후과제로 지적되는 재야와의 연계작업및 질적발전을 위해서 첫째 그동안 실질적 변혁의 주체였던 노·학연대세력및 재야세력과의 통합작업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점이다。이를 위해서는 「전농련」의 투쟁방향을 정치투쟁으로 설정하고 이를 강고히 하기위한 대중동원의 조직화 작업이 보장돼야 할것이다。

둘째 농민의 생존권보장투쟁이 한반도내의 외세척결과 직결됨을 직시하여 강고한투쟁역량을 쌓아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마지막으로 1천만 농민을 대변하는 통합체로서의 위상을 정립하여 지자제와 관련, 대정부투쟁에적극 추동하고 특히 「전민련」과의 조직적 관련및 지역민족민주운동권과의 결합 속에서 주체적이고 조직적인 투쟁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뭏튼 지금의 한국농촌은 파탄위기에 직면해 있다。오직 농민들의 강력한 결속을 통해서만 생존권을 담보할 수 있다。이에 「전농련」은 농민의 생존권투쟁과 아울러 점차 고양되는 통일열기에 부응, 이 사회의 민주화·민족통일운동에 앞장서 가열찬 투쟁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만섭記者>

民生治安, 사회구조적 모순척결로

孫海睦 <법과대교수·형사법>

오늘날 정치 경제 사회 어느것 할것없이 우리는 몹시 불안한 환경속에 처해있다。어제까지는 정치권력의 독선과 불안속에서 눈치만 보다가 이제 겨우 자율적 민주주의의 역사는 시작되나 했더니 아직도 각계 각층의 守舊派와 革新派의 대립은 우리들을 더욱더 불안하게하고 있다。그러한 가운데 과거의 비리와 모순은 하루빨리 시정되고 정리되어야한다는 소리는 높아지고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정리되기도 전에 우리사회는 여러가지 새로운 모순이 일어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현실적으로 피할수 없는 것이 民生治安의 문제이다。신문 방송등을 통해서 알려진바와 같이 절도 강도등 기존의 범죄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인신매매 마약 가정파괴범등은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범죄의 원인과 배경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도 경제적 빈곤을 학자들은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있다。어떤 법인은 「無錢有罪 有錢無罪」라고 하였지만 최근의 신종범죄는 꼭 그런것만은 아닌것 같다。산업화사회에 있어 소득증대에서 오는 향락주의가 바로 인신매매을 필요로 하게하였고 마약을 가정에 까지 파고들게 한것이다。

또한 범죄수법의 대담성과 비인도적인 행위는 우리사회에 있어 인간성과 인륜도덕을 완전히 앗아간 것이나 다름없다。더욱 놀라운 것은 범죄연령의 연소화 현상이다。청소년들이 자기 부모나 누나와 같은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수치감없이 저지른 폭행 (강간) 행위는 무어라고 설명할 길이 없다。나는 얼마전에 어떤 절 (寺) 의 여자스님이 찾아와서 사형집행을 앞두고 있는 사형수를 구할 길이 없느냐고 눈물로 호소하는 일을 겪었다。

그 사형수는 바로 가정파괴범이었다。스님의 말씀은 대단히 억울한 사정이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보석촉구등 이미 법적인 모든 방법은 다 동원해 버린뒤 였다。아마 지금쯤은 그 사형수는 「사형대의 이슬」로 사라졌을 지도 모른다。법은 죄를 엄하게 다스리고 있거늘 그런데도 불구하고 범죄는 나날이 흉악화되고 지능화되며 우리 사회를 이렇게도 어지럽히고 있을까。이제는 또 가정파괴범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의 촉감은 둔감해지고 말았다。

놀랍게도 경찰통계에 의하면 가정파괴범의 년 발생건수는 약 3백건에 이르고 있다。지난80년부터 88년까지의 최근 통계만 보더라도 80년에 81건에서 88년에 2백69건으로 늘어났다。더군다나 최근 통계는 년평균 40%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물론 이것은 경찰에 신고된 숫자이다。그러나 가정파괴범의 경우는 수치심때문에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않은것도 상당수 있을 수 있다。신고해 봐야 법인체포는 커녕,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없고 불명예, 모욕감때문에 이중의 피해를 본다는 심리등으로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문제는 이러한 가정파괴범, 한가정을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범죄가 날로 늘어나고있는 점이다。우리들의 주위에서는 피해자가 비관 자살하거나 정신병자로 전락하지않으면 이혼하는 사례마져 있다。

이와같이 늘어나는 범죄를 예방하고 방지하기위해서 정부에서는 주무장관을 경질하였다。경질된 주무장관은 예하 경찰관에게 근무시간을연장하고 비경찰관 공무원에게까지 치안담당을 강요한바있다。

정부는 제2수단으로 현행법의 처벌이 가볍다고 하여 보다 重刑을 가할 수있는법개편을 서두르고 있다。즉, 경찰과 여당에서는 법무부에 현행 형법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의 重刑개정을 요구하고 있다。현행 법상으로 강도강간죄에 대해서 초범과 3년이후의 재범에 대하여는 사형을 가할수 없도록 되어있다。따라서 3년이내의 재범 즉, 상습법에 대해서는 사형을 가할 수있도록 되어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5항)

이에 대해서 개정법안은 모든 강도강간죄에 대해사 사형을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유는 重刑을 가함으로써 범죄의 一般豫防을 꾀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경찰이 분석한 강도강간죄의 증가원인은 최근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향락주의의 발달과 가치관의 혼란 도덕성의 결여등으로 인하여 무차별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이나 당국이 가정파괴범의 증가원인을 이와같이 본다면 그 예방이나 재범의 방지도 이러한 원인에 대한 처방을 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도덕성의 결여와 가치관의 혼란, 향락주의의 발달이 그원인이라면 정부 당국에서는 重刑일변도로 죄의 방지는 처벌만으로는 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수있다。범죄의 원인은 여러가지 있으며 복합적이다。그 복합적인 원인을 복합적인 방법으로 대처해야 한다。꾸준히 노력을 기울여야한다。처벌일변도로 나아간다는것은 應報刑主義를 말한다。

응보형주의는 이미 18세기말에 헛점이 지적되어 새로운 형벌사상이 등장하였다。이것이 교육형주의이며 特別豫別主義이다。

그후 약2백년동안 양형별 사상은 범죄의 방지와 처치에 끊임없는 노력을 하였으나 별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있다。이제 학자나 전문가들은 형벌이외의 다른 수단을 모색하기에 여념이없다。이것은 법률만으로는 해결되지아니한다。즉, 법이외의 사회 경제 심리 정신의학 종교 윤리등 각계 각층의 협조관계에서 이루어진다。

더군다나 극형을 가하여 범죄를 뿌리뽑겠다는 생각은잘못이다。서독은 기본법에 사형을 폐지하고 있다。처음에 사형을 폐지하면 흉악범이 늘어날것으로 우려하였다。

그러나 사형폐지후에도 흉악범은 늘어나지를 않고있다。이것은 처벌만으로는 범죄를 예방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마치 최류탄만으로는 데모를 막을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 논리이다。범죄의 예방과 처치는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重刑은 또 다른 重罪를 불러버린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우리 경찰이 범인에게 가스총의 사용을 가르쳐 주었다는 사실은 결코 농담이 아니다。

흉악범 준동은 무분별한 향락주의서 비롯해

■피로할때 ■기미·주근깨에 ■거칠어진 피부에 ■잇몸출혈에 ■공부할때

●악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Miss 레모나 지금은 봄이에요!

봄볕의 따사로움이
미스 레모나 여린 피부엔
너무 강하죠?
봄에 깨어나는 피부—
레모나로 탄력을 유지시켜 주세요.

레모나는 체내에 잘 흡수되어
피로를 회복시켜 주며,
기미·주근깨 형성을 예방시키고
피부를 부드럽게 가꾸어 주는
비타민C 제제입니다.

이 봄도 레모나와 함께
싱싱한 만남의 싹을 움트게 하세요!



●표준소매가격 : 20포 2,000원/240포 23,000원

PM 경남제약주식회사

퇴임기자의 辯

"끝은 또 하나의 시작…이젠 빚갚음으로"



아무개해 아무개달 아무개날!

드디어 그날이 내게도 영락없이 다가왔다。세상만사가 어수선한 가운데도 제대로돌아가고 있건만。난 그날 아침부터 색다른 기분을 느껴야만 했다。

학교를 오르려고 몸을 맡긴 버스에서 그만 발견을 하고 만 게다。

「남자자식이 무슨 반지냐」



노 건 환 〈편집장〉

"이제는 미련없이 이 자리를 떠나 東大新聞을 사랑하는 일만 남았다"

라면 소리에도 아무렇지도않았었다。바로 그 반지를 집에 두고온 것을 발견하고서는 앤지 허전한 기분을 누를길 없었다。

창밖을 스치는 전원풍경속으로 갖가지 영상들이 「클로즈업」된다。

대학생활의 거의 전부라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東大新聞社생활의 기억들。나의 생각과 행동거지까지도 바꿔놓은 신문사생활은 어두컴컴한 지하실의 분위기를 익히면서부터 시작됐다。(시대상황만큼이나 어둡고 착 가라앉은 분위기였지。)남들은 쉽게 보고 쉽게 집어던지는것을 보면서 가슴아파해 보기도 했다。같이 일하던 동료·후배 기자들이 떠나 갈때 잡아보기도 했다。허나 갈 사람은 영락없이 떠나 가는 것을…。

다시 햇살이 얼굴에 비치고 산등성이에 구름그림자가 엷혀 있다。그리고 수백년 묵은 느티나무가 마을 한모퉁이에 농인 것이 보이기도한다。바깥구경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손가락을 만지작 거린다。

누구 말마따나 때를 잘만나 지령 천호신문을 만드는 영광도 누려보고 筆禍사건도 겪어보았다。얼마전엔 신문편집체제상 가히 「개혁」적이라 할수 있는 가로쓰기 전면단행도 실시했다。그밖에도 이루헤아릴수없는 수만가지 기억들。

그야말로 신문과함께 울고 웃으며 정신없이 살아왔다。얻은것도 많았고 잃은 것도 꽤 있었다。허나 결코 후회는 하지 않는다。단지 보람과 자부심 그리고 추억이있을뿐이다。버스는 어느새 서울에 도착해 지하철로 옮겨 탔다。

어느 선배기자의 충고대로 이제는 미련없이 이 자리를 떠나 東大新聞을 사랑하는 일만 남았다。

우리의 뒤를 이을 기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 한마디 뿐이다。

『기자정신을 끝까지 잃지 말고 불꽃같이 정열을 태우라』 ―「盡人事待天命」(사람이 제 할일을 다하고 하늘의 결과를 기다린다) 이라 했으니 말이다。 <문과대 국문과>

소중한 인연의 타래들…



나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노래를 하고 싶었다。퇴임기만은。물어 두고자 했다。가슴속 깊이。무얼 더 주절거려야 하나。활자와의 인연。데드라인을 의식하면서 늦은밤 200자 원고지와 침묵의 대화 3년。일차원적 만남이 아닌 4차원적 공감을 위한 글을 쓰려고 애썼던시간들이었다。지금은 진실, 정의, 진리에 대한 나의 도그마를 독자들에게 주입시키려 했던 점을 반성할 시간。

글 (언어) 에 대한 가치。



임 수 현 〈취재1부장〉

"조금은 자유로와진 지금 소홀했던분들께 정감있는 글을 주고 싶다"

신문에 실리는 무수한 단어들의 혼재。거기엔 올바른 규칙과 생명이 주어져야 한다。언론의 글은 구체적이어야한다。

관념이나 추상성으로 울림없는 메아리여선 안된다。아니 관념적이고 추상성을 띠면서도 현실적이며 구체적이어야 한다。그래서 글(언어)은 뜻의 나열이 아니라 「무기」다。생명이다。글은 시여야 한다。노래여야 한다。'4차원적 만남이어야 한다。모든 사람과 함께 하는 글은 무기요, 생명이요, 시며 노래여야 한다。

나는 「고독한 성주」다。우리 모두 「고독한 성주들」이다。얼마나 부족한가。얼마나 자만한가。꽁꽁 묶인 수인들이다。우리는。풀리지 않을 사슬에 묶인。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던 내 부끄러움의 기록인 이 터발과도 이젠 공식적인 이별이다。독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들에게 무엇을 알려야 할것을 고민하던 순수한 기자이고자 했던 곳。거기엔 公器·公人이란 말한마디에 사적인 것이 끼어들틈은 없다시피 했다。

우리는 아니 나는 항상 빚짐의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다。주위의 모든 분들에게。이 사회에。빚갚음을 해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동대신문으로 맺어진 소중한 인연의 고마운 타래들을 소중히 기억하련다。그리고 그 모든 분들께 고개숙여 감사드린다。

열병과 광기의 시대。진실의 언어와 몸짓만이 필요하다。함께 부대꼈던 동기들, 4K 2H 선배님들, 떠났던 동료들 떠났던 후배들, 남아서 필맥을 이어갈 고생문 열린 후배들 모두에게 미안하고 고마울 뿐이다。

활자와의 인연으로 소홀했던 부분들。이제 조금은 자유로와진 지금 그들에게 정감있는 글을 주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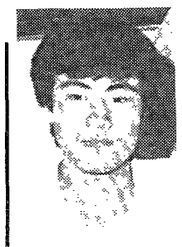
그리고 연가를 부르고 싶다。나의 베아트리체를 위하여。

<사회과학대 사회학과>

주점 「물레방아」에서

어떻게 기억될까? 지난대학3년, 아니신문쟁이생활 3년。

제주행 비행기표를 반납한채 호프생맥 한잔으로 이미 떠나버린 나였지만 동대신문사 너와나의 만남은 일생을 두고서 소중한 추억이 될것이며 인생의 여정이 고달프거나 시련을 겪게될때는 삶의 방향을 굳건케하는 귀중한 담보가 되리라 믿는다。



정 성 기 〈취재2부장〉

"펜촉사이로 내몸속의 피가 흘러 메워진 원고지와는 이젠 안녕이다"

주점 물레방아에서 돌아 탈바가지를 벗으면서 따까리생활1년 중역기자로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숱한 2백자 원고지와의 파지싸움, 그것은 하나의 인간승리 드라마 였으리라。

이제 남은것은 빼곡한 글씨로 가득채워진 취재수첩3권, 세미나사진, 흑백 인물사진, 그리고 쓰다남은 원고지

"때를 잘만나 지령 천호신문을 만드는 영광도 누려보고 필화사건, 가로쓰기 전면단행도 겪었다。이밖에도 이루 헤아릴수 없는 기억들。"

배우지않았나 싶다。

동대신문사가 맺어준 펜과 원고지의 인연이 없었다면지금 어떤 모습이 됐을까?몹시 궁금하다。

이제 아름다운 긴여정을 마치면서 신문사관계 여러선생님, 두고떠나나온 후배들, 막걸리와 소주잔을 나누던 친구와 형들, 그리고 석장골 813번지 가족들에게 모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끝으로 항상 격려의 말을 잊지않았던 하이델베르그 소녀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마지막원고를 접어 돌련다。동대신문사의 힘찬돌진과 새롭게 비약하기를 간절히바란다。

<인문대 영문과>

우리의 시라소니를 위해

호호호 ㅎㅎㅎㅎㅎ, 퇴임의 변이라니。

이제 슬슬 사타구니가 가려워 진다。문득 나무에 매달려 안간힘을 쓰는 은행잎 하나에 갈채를 보내고싶다。새는 알에서 빠져나오려고 투쟁했다면 이놈은 세상에서 빠져나오려고 했는지도모른다。철저한 가면을 쓰고 좌·충우·돌 무언가 미치고 싶은 날 무언가 정당히 폭력과굴종에 대항하고 싶은 몸짓을 풀어가며…

의식이 정제된 이 순간에 지난 일들을 떠올리며 부서진 간을 아파할 만큼 어리석지는 않다。그러나 지난날의 부끄러움들은 내일을 위해 한번쯤 되씹고 가야 할것같다。

지―독―하―게― 굶주린 곳 선배들의 욕망의 분출과 후배들의 갈증이 社內 곤적이는 곳。유달리 침침한 분위기는 여신 참담한 이 현실을 닮고 있다。또 하나 더욱 깊게 배인 어둠의 섬, 그곳이 바로 나에게 도전을 요구하고 어둠에서 생존하는 오기를 길러준 암실。시커먼 석고흉상이 버티고 서서 말똥말똥한 네살박이를 다부지게 두드린 곳도 그곳이다。



지 희 현 〈기획부장〉

"나는 나의 내부에서 스스로 뛰쳐나오려는 것을 살아보려 했을 따름이다"

이제 이러한 공간은 나와 함께 존재하지는 않을것이다。가슴 한구석에 담아두기에는 심장이 위험하다。그래서 심장과 가장 멀리 떨어진 발바닥 깊숙한 곳에 자리를묻어두기로 했다。

이 시대는 날카롭게 날선 언론의 칼보다는 인간 자신의 칼을 지키는 일이 더 어려운 것임을 감히 내 뒤로 오는 다음대에게 간곡히 당부한다。

어떤 일이나 실수가 있게 마련이다。바로 이 실수가 지난 날 내가 데스크를 맡으면서 만들었던 신문의 흉이 된다는 생각에 간절히 또 한번의 기회를 갖고 싶다。하지만 형태의 변화로 또 다른 세계에서 똑같은 일이 내게 주어지고 있음에 난 아쉬움속에 눈물을 그렁그렁 참으며 갈 곳으로 가야 한다。背은 腹으로 대신할 수 없다 하지 않았는가。

술에 쩔고 의식에 밀린 어설픈 사자보다는 젊고 강한 시라소니가 필요하리라。그래야 끌나지 않는 저 「한의 노래」들을 잠재울 것이다。상식적인 견해와 사고 방식의 한계로 인하여 맞딱뜨려야 할것에 피해가는 어리석음은 없어야 한다。『나는 나의 내부에서 스스로 뛰쳐 나오려는 것을 살아보려했을 따름이다。그런데 그것이 왜 그렇게 어려웠던지…』―아!멋대로 내 마음에 새겼던 사고방식과 사랑하는 모든것이 나의 세계에서 천천히 떠나가고 있다。<농과대 임학과>

"혼란의 끝이었어"

혼란은 끝났도다。

긴장해서 입구의 문설주에 기대어 나는 저멀리 되울림 소리부터 앞으로 닥칠 일들의 암시를 들으려 한다。…3년간 나를 한자리에 못박았던 그 무거운 고뇌로부터 홀가분해 지는 날, 우습게도 나는 더욱 무거운 마음을 가눌길 없다。이젠 퇴기(退記)의 몸이라서 어색해져버린「문화부장」의 명패가 이토록 부끄러움으로 달아오를 줄이야。

시작은 언제나 호화롭고 번듯하고 조금은 모호하게 추상적이었다。나는 그러했지。

「이카토스의 날개」를 달고 어줍잖게 「탈 수습」을 했던 날이 나에게도 있었다。하늘같은 선배들이 부운 몇 잔의 술로 그렇듯 했던 환희를 애써 잠재우며 기자라 쑥스럽게 스스로를 은밀히 불러보았었지。남 정령기자…그 찬란한 비상을, 무지와 무관심의 벽으로부터의 탈출을 꿈꾸면서 깨어지고 아프더라도 해내고 만다, 스스로를 일으켰어。

수북이 쌓이는 원고지의 파지만큼 절망도 비례해서 늘어갔고 헛된 몸부림에 울음이 언제나 자글자글 끓어올랐다。이제 여기 「퇴임의 변」을 너절하게 늘어놓음으로써 3년간의 묶음을 정리하려는 지금 나는 어디 조그만 쥐구멍이라도 찾고싶을만큼 스스로의 시간들이 헛된 망집이었음을 느낀다。

여전히 캠퍼스에는 네번째의 봄이 찾아오고 나는 잠시 벗어놓았던 신발을 다시 신으며 무대를 나선다。연극이었던가。

나는 또한 고뇌하는 햄릿이었던가。…神이여, 마음이내키시면 이 잔을 내게서 앗아가오… 끝없이 도망가고싶었던 내 무대의 끝자락을, 막내림을, 마지막 말의 닫힘을 가슴쓰리게 응시하며 모두에게 감사와 사과의 말을 전하고 싶다。

무엇보다도 망나니, 철부지 골치덩이 여자동료를 위해 맘고생을 했던 건환이, 수현이 희현이, 성기에게 그리고 좋은 후배들에게 또한 끝없이 추락해버린 비운의 이카토스에게도 나에게도 국장님 주간님 상애형 은경이 모두모두에게。

그리고 무표정의 얼굴을버리고, 모든게 허위일지라도 너만은 옳게 서라던 「東大新聞」。지령 1천호를 지나 가로체제로 전환해서 더욱 완숙미를 갖추게 된 것이 못내기쁘다。앞으로 동대신문의 발전은 후배들의 몫이다。그들이 자랑스런 전통의 펜대를 이어 받아 새롭게 창조해가는 모습이기를 빈다。

어느날, 神은 내게묻는다。

너는 무엇을 했더냐, 거기서。오, 한없이 울고있는 너, 무엇을 했더냐…。

<문과대 영문과>

달하나 千江에

인연없는 중생

崔 昌 述

<불교대교수·禪사상>



오늘날 과학문명이 인류에게 안겨준 많은 혜택 가운데 그 하나가 자동차의 이용일 것이다。자동차가 어른들 장난감이라고들 한다지만 나의 교통수단은 지하철, 버스가 고작이고 이따금 택시를 이용하게 된다。

출퇴근 시간이 되면 차타기 경쟁이라도 벌어진양 사생결단하고 몰려드는 인파속에 밀리고 밀려가게 된다。지난주 며칠간은 내가 주로 이용하는 지하철이 서로간의 이해관계에 얽혀 문제 해결을 보지 못하고 결국 무임승차에 이르고 말았다。당국의 집계가 후일에 발표 되리라 믿지만 정상운행때보다 훨씬 많은 지하철 이용객으로 차 속은 북새통이었다。

이 가운데서도 어느 역에서인가 빈자리가 하나 나게 되었다。한 중년 남자가 옆자리에서 있었는데 나에게 앉으라는 턱인사를 하였다。물론 나는 사양을 하였다。왜냐하면 많은 사람 가운데 자리 하나를 놓고 너나 없이 군침을 삼켰을자리인데 내가 앉아서 여러사람의 작은 행복을 깨뜨릴까해서이다。재차 아랑부리며 끌어 대는 그승객의 억척에 그만 팔이 끌려 앉았다。

조금 지나 이 승객은 푸념을 늘어놓기 시작하였다。아마 자기 말 동무로생각하고 앉혀 놓았던 모양이다。

세상살이에서부터 나의 신상에대한 물음까지… 술에취한 사람 탓해 무엇하랴 막무가내로 큰소리 칠때마다 술 취한이를 놓고 역정내고 대꾸하여 무엇하랴생각하며 체념상태에 들어갔다。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因과 緣이 모두 구비되어야만이 무슨 일이든지 성취된다 (因緣具足 乃得成辦) 고 하는 하나의 원칙이있다。

가령 나무가 불타는것은 무엇때문일까 두말할 필요없이 나무속에는 불탈만한성질이 있어서 그것이 因이 되기 때문이며 만일 사람이 불을 붙이는 緣을 마련해주지 않는다면 나무가 저절로 불타는 일은 없는것이다。

衆生 또한 이와같아서 너나없이 業報를 타파할 만한 眞如의 薰習力이 因으로서 존재하기는 하지만, 만일 불·법·승 三寶를 만나는 緣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중생 스스로 번뇌를 끊고 니르바나에 들어가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여자가 아무리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실로 누군가의 아내로서 탈바꿈하지 않으면 전혀 그 구실을 할 수 없음과 같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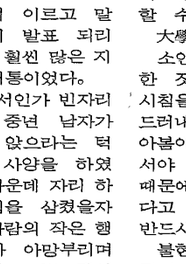
大學에 君子必愼其獨이라는 구절이있다。

소인이 혼자 있을때에는 한없는 불선한 짓을 하다가 군자를 보고나선 슬쩍 시침을 때고 그 불선을 가리우고 선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지만 남이 자기를알아봄이 마치 그 심장을 뚫어보듯 한데서야 그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성실하면 밖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다。그런 관계로 군자는 반드시 內奧한 곳을 조심한다고하였다。

불현듯 며칠전 지하철 안에서 시비를 걸던 그 중년 남자가 곰곰히 생각이 났다。어찌 그와 같은 이가 그이 한사람 뿐이랴。자기 내적인 살림은 한없이 부실하여 금방이라도 바람에 날아 갈듯이 가냘프면서도 감히 남의 생활에 격앙된 어조로 푸념이나 늘어 놓는 어설픔이야말로 소인배 가운데 소인배의 부질없는 늘음이다。

범부와 성인의 차별은 오직 用心에 있다고 화엄경 普賢行願品에서는 이르고 있다。

用心을 잘 못하여 인을 만나도 緣을 맺지 못하는 無緣衆生은 얼마나 슬픈 존재인가。



남 정 령 〈문화부장〉

"마지막 말의 닫힘을 가슴쓰리게 응시하며 벗어놓은 신발을 다시 신는다"

동악広場

문화다신

「쭐병수첩」공연

극단가교에서는 오는 18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쫄병수첩을 샘터 파랑새 극장에서 공연한다。

대학생으로 군에 입대한 주인공 현준일의 시각으로 그려나가는 병영스케치로 남성사회 특유의 생활을 풍자와 아픔으로 엮어 군시절의 향수를 되살려준다。

군대사회의 허와실을 조명한 이공연의 자세한 문의는 762―0703으로 하면된다。

「아, 체르…」공연

극단민중은 소련작가 블라디미르 구바리예프의 「아, 체



극단 민중의 「아체르노빌」中

르노빌」을 오는 22일까지 동숭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한다。지난해 공윤에의해 상연 보류 처분을 받았던 이 작품은 86년 4월 체르노빌의 원자로 제4호기의 폭발이 빚은 대참화를 그린 희곡。공연은 하루에 4시, 7시 30분 두차례이다。

「발바…」공연

극단맥토에서는 지난 18일부터 내달 10일까지 명동 엘칸토 예술극장에서 발바리의 추억을 재공연한다。

공연기간은 오후4시30분과 7시30분의 2차례이며 자세한 문의는 776―8035로 하면된다。

「공간…」공연

소극장 공간사랑에서는 이달부터 매월 마지막 3일동안 「공간무용의밤」을 공연한다。

지난 77년 「문화인의 사랑방」이란 취지아래 개관된 「공간사랑」은 80년 3월부터 약한달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공간무용의밤」을 기획, 소극장 중심의 작은 무용무대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왔었다。

「미남소동」공연

극단해넘에서는 지난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해넘예술공간을마련, 창단공연으로 「미남소동」을 공연한다。

안양영화예술학교 14회 졸업생들이 주축이되어 지방문화를 일구는 해넘의 첫작품인 미남소동은 평일 7시, 주말 4시, 7시 2회공연하게되는데 자세한 문의는(032) 82―4092로 하면된다。

후앙·미로판화전

예성화랑에서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후앙·미로의 판화전을 연다。

피카소, 샤갈과 더불어 금세기의 가장 위대한 화가의 한사람인 미로의 판화 세계를 한눈에 볼수있는 이번판화전의 자세한 문의는 738―3630으로 하면된다。

김종일개인전

롯데잠실미술관에서는 추상화가 김종일씨의 개인전을 오늘 (15일) 부터 오는 30일까지 가진다。

검정색을 주조로 중첩되는 사각형을 통한 기하학적 표현을 즐기는 김종일씨의 이번 개인전의 자세한 문의는 412―2500으로 하면된다。

특집작가전

선화랑에서는 지난9일부터 오는20일까지 선미술창간 10주년기념 특집작가전을 개최한다。

1979년 창간된 미술계간지 「선미술」이 창간이래 통권 40호를 내기까지 매호마다실어온 특집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이번 작가전의 자세한 문의는 734―0458로 하면된다。

「금강」개관 기념 작품전

예술마당 금강에서는 개관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황토현에서 곰나루까지」 작품전을 오는 23일부터 내달9일까지 갖고, 매주 금·토·일요일저녁 좋은 영화를 선정하여 좋은영화한마당을 펼친다。

게시판

제4기시민학교

서울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에서는 오는 16일부터 5월11일까지 제4기 시민학교를 개설한다。서울 및 수도권 일원의 시민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시민학교의 원서는 민주통일시민학교 교무처에서 오는 16일까지 접수하며 성금은 3만원이다。(자세한 문의는336―9718, 332―2561)

「젊은이…」강의

예술극장 금강에서는 오는 20일부터 6월 26일까지 15주간 매주 월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젊은이를 위한 한국미술사」 강의를 갖고 슬라이드 해설을 상영한다。수강료는 일반 3만원, 학생 2만5천원이다。

「현상과 인식」논문모집

계간 학술전문지 「현상과 인식」은 대학원학생들의 연구활동을 북돋아주고자 「현실과 인식학술상」을 마련 대상논문을 모집한다。(자세한 문의는 392―0131)

「시선」 시낭송회

시선 문학동인회에서는 오는 23일 경주시 중앙동 사무소옆 「공간예술」에서 창작시 낭송회및 경북문협 시인초청 낭송회를 갖는다。

포항민주학교

「포항민주학교」 교무처에서는 지난 4일부터 오는 5월 19일까지 매주 금요일 7시에 개설되는 민주학교에 시민, 학생및단체를 대상으로 학생을 수시모집하고 있다。자세한 사항은 (0561) ―44―4835로。

불교기초교리강좌 개설

동산반야회주최 불교기초교리강좌가 3개월과정으로 지난 5일부터 조계사 불교회관에서 매주일요일 6시에 열린다。

군종장교 후보생 정기총회

군종장교 후보생 정기총회가 오는 16일 (목요일) 오후5시 정각원에서 열린다。이번 정기총회에서는 89학년도 제1학기 신입회장단소개와 사업계획이 발표된다。

동아리활동

개강법회

불교학생회에서는오늘(15일) 오후5시, 정각원에서 출가의 참뜻과 정토구현의길이라는 법제아래 전 동국인을 대상으로 개강법회를 갖는다。

서도회 일일찻집

동국서도회에서는 오는 29일부터 열리게 될 춘계전시회 기금을 마련하기위해 오는 17일 후문옆에있는 안단테에서 일일찻집을운영한다。(AM. 10~PM. 8)

디딤돌 회원모집

영화공동체 디딤돌에서는 지난 13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신입회원을 모집중이다。(장소는 학생회관 1층 동아리방)

제4회신입생환영공연

경주캠퍼스 동국연극회는 제4회신입생환영공연을 소강당에서 지난14일 오후 5시와 오늘·내일 오후2시, 5시에 「꿈먹고 물마시고」의 공연이 계속된다。

영상회 회원모집

경주캠퍼스 영상회는 지난 6일부터 사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참신한 신입회원을 학생회관3층 동아리방에서 모집중이다。

아르바이트

「서울…」홍보직

서울무역서비스센타에서는장기적으로 홍보를 담당할 아르바이트생을 3명이한해 모집한다。보수는 월15만원으로 대상은 야간강좌에 재학중인 학생이나 휴학생이다。

동국관식당 서빙

동국관식당에서는 오전11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두시간동안 서빙을담당할 여학생 3명을 모집한다。보수는 시간당 1천2백원이며 중식이 제공된다。

남대문식당 배달

남대문식당에서는 오전8시부터 오후4시까지 장기적으로 배달을 담당할 아르바이트생으로 남자2명을 모집한다。휴학생이나 야간강좌학생이 대상이며 보수는 월 17만원에 3식이 제공된다。

「케이…」 보조

케이테크에서는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 1년간 문서를 수발할 야간강좌 남학생 5명을 모집한다。보수는 월22만원이며 학생과에 비치된 아르바이트 신청서 제출자를 우선으로 선발한다。

단대 신입생환영회·출범식 거행

9~17일, 농대 필두로 불대·사대순 열려

불교대 신입생환영회가 지난 13일부터 오는 17일까지 닷새간에 걸쳐 실시된다.

첫날인 13일 오후12시30분 신입생 환영법회가 정각원에서 있었고, 14일엔 5·18광주민중항쟁에 관한 비디오상영이, 오늘(15일)은 8·15남북학생회담에 관한 비디오상영, 오는 16일에는 불교운동에 관한 비디오상영, 마지막날인 17일에는 21대 불교대학생회 (회장=남호섭·인철4) 출범식및 신입생환영 대동제가 본관 강의실 (미정) 에서 있게 된다.

문과대 신입생환영회및 학생회출범식이 지난14일 오후1시 학장, 학생회 신·구임원, 신입생등이 모인가운데 중강당에서 열렸다.

이과대 신입생환영회및 학생회출범식이 14일 오후3시 학생 2백여명이 모인가운데 다향관 (학생식당) 에서 열렸다.

법과대 신입생환영회및 학생회출범식이 지난14일 오후3시 학림관 소강당에서 열렸다.

사회과학대 신입생환영회및 학생회 출범식이 오늘(15일) 오후 3시부터 중강당에서 전Ⅱ부로 나뉘어 열린다.

경상대신입생환영회및 학생회 출범식이 14일 열려 오늘 (15일) 까지 계속된다.

농과대 신입생환영회및 학생회 출입식은 지난9일 오후2시 신입생및 재학생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림관 (소강당) 에서 열렸다.

예술대신입생 환영회및 학생회 출범식이 지난14일 오후 4시 학림관 (소강당) 에서 열렸다.

공과대 신입생환영회및 학생회 출범식이 오는 17일 오후 4시 중강당에서 있게 된다.

사범대 신입생환영및 학생회 출범식이 지난 13일 오후2시 5백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중강당에서있었다.

야간강좌신입생환영회는 지난14일 오후6시 중강당에서 가졌다.

한편 야간강좌학생회출범식및 정기학생총회를 지난 8일 오후6시 신입학생회장이 광호 (회계3) 군을 비롯한집행부및 학생 4백여명과 중앙대, 서울산업대야간강좌학생회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국관 (5층로비) 에서가졌다.

경주는 13~16일

경주캠퍼스 총학생회 (회장=김동선 중문·3) 에서는 지난 13일부터 오는 16일까지를 신입생 환영주간으로 설정했다.

지역개발대학원 8일첫입학식

경주캠퍼스 지역개발 대학원 첫 입학식이 지난 8일 오후6시 閔丙天 同대학원장을 비롯한 관계인사 학생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흥관 (B101) 에서 열렸다.

이날 입학식에서는 개발행정학과 1개학과 3개전공(개발행정, 지방자치, 지역경제개발) 에 학위과정 27명, 연구과정이 2명, 관리자과정 55명등 총84명의 신입생이 입학했다.

이 대학원의 교수진은 閔丙天 (대학원장·정치학) 교수 김시배 (상경대학장·경제학) 교수등 10명의 교수와 강사 4명으로 이루어졌으며 매주 화·수요일 오후 6시30분부터 9시20분까지 2시간에 걸쳐 진흥관101, 203, 204, 강의실에서 수업하게된다.

한편, 신입원생들의 적응지도및 수강신청은 지난 8일에 있었고 개강은 지난13일에 되었다.

일부부서 직제개편

경주에 기획홍보과 신설등

총장직속기관인 공보실을 공보부로 명칭을 바꿔 기획조정실 산하기관으로 하는등 지난 13일 직제가 개편, 현재 시행준비 작업중이다.

직제개편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체육실이 독립기관에서 학생처 산하기관으로, 경주캠퍼스 부총장 직속기관으로기획홍보과를 신설, 경주캠퍼스 예산범위내에서 예산조정·통계및 발전계획의 기획, 각부서의 업무조정, 각종통계분석관리, 홍보를 담당하게된다.

또 의학계열학과에 기초학 교실을 마련해 각 주임교수를 두기로 하고, 대학원 학감을 교학부장으로 각부서의 주임을 계장으로 각각명칭을 개편했다.

한편, 지난달 28일자로 교련교관이 면직됨에 따라 별정직 직원제도가 폐지됐다.

인도학술조사단 지난 2일 귀국

인도와 우리나라의 불교문화교류관계를 구체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지난달 14일 인도로 출국했던 「인도불교문화학술조사단」이 지난2일 귀국했다.

文明大 (미술학)·鄭柄朝 (국민윤리) 교수등 불교관계전문가 4인으로 구성된 이학술조사단은 주로 봄베이 근처에 있는 「아잔타」 「에롤라」 「바자」 카로나」 「나시크」 석굴사원등을 집중조사했는데 「나시크」 사원에서는 우리나라 8C불상들과 유사한 불상이 발견돼 우리나라와 인도의 불교문화교류관계 이해에 증거가 되었다.

한편 이 학술조사단에서는 오는10월경에 사진자료전과 학술강연회를 열 예정이다.

도서차람증 발급

열람과서 이달말까지

서울캠퍼스 89학년도 1학기 도서차람증의 신규발급및 재발급을 오는 31일까지 중앙도서관 1층 열람과에서실시한다.

신규발급에 필요한 준비물은 89학년도 1학기 등록영수증과 사진1매 (반명함판) 이며 재발급자는 88학년도 차람줄을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



빼앗긴 일방통행

캠퍼스로 향한 학우들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후문앞의 일상화된 혼잡. 지난해 학생들이 시행정기관에 줄기차게 요구, 얻어낸 일방통행이 교통안내 아르바이트생 동원, 표지판 설치등 자율적인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성을 지니지 못해 표류하고있다. 후문 주변의 장기적인 도로정비도 시급하지만 현실적으론 전학우가 일방통행의 불침번이 됨이 그 해결책일듯. <글=임수현記者, 사진=서창훈記者>

경주총학 예산안에 문제제기

대의원회서, 예산편성소위 구성키로

경주 캠퍼스 대의원회 산하 중앙위원회는 지난 8일 총학생회 89학년도1학기 예산편성안에 대한 문제제기에 나섰다.

이번 총학생회 예산편성안은 88년1학기와 2학기에 대비하여 이루어진것으로 내역을살펴보면 예산총액 2천7백45만원에서 예비비10%를 제외한2천4백70만5천원 가운데 특별예산으로 학복위가 2%인 49만4천1백원, 동아리연합회가 1백72만9천3백50원 (7%), 신입생환영회에 1백48만2천3백원 (6%), 등산대회에 61만7천6백25원 (2.5%), 선거관리비와 대의원회에 각각 49만4천1백원(2%), 장학기금으로 37만5천5백75원 (1.5%), 4월제와 학회연합회에 각각 49만4천1백원(2%), 축제에 2백47만5백원(10%), 학지투 기금98만2백원(4%), 자주학교에 61만7천6백25원(2.5%)씩 배분하게되었으며 기구별 집행예산으로는 총학이 19%인 4백69만3천9백50원인것을비롯 여학생회가 1백23만5천2백50원(5%), 인문대가 2백22만3천4백50원(9%), 상경대가 1백97만6천4백원(8%), 자연대가 1백35만8천7백75원(5·5%), 법정대가 1백23만5천2백50원(5%), 한의대가 74만1천1백50원, 의과대가 49만4천1백원 (2%)씩 배분되었다.

동국문학상 수상 소설 趙廷來동문



◇趙廷來 동문

趙廷來 (66년·국문졸) 씨가 동국문학인회 (회장=李炯基) 제정, 동국문학상 제3회 수상자로 결정돼 시상식이 오는 17일 오후6시 출판문화회관 4층강당에서 열린다.

현재 趙동문은 분단비극을 총체적시각으로 파악하고 객관적인식으로 형상화해나가고 있는 「태백산맥」 3부2권을 집필중이다.

신임교원 23명 인사발령

지난1일, 서울7명·경주16명

학교당국은 지난3월1일자로 신임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및 대우조교수·대우전임강사등을 인사발령했다.

구랍1일과 지난1월1일, 2월1일에 이은 이번 인사발령은 모두23명 (서울캠퍼스 7명, 경주캠퍼스 16명) 이며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서울캠퍼스

▲영문과 대우조교수=趙儀衍 (81년 본교 영문과卒, 88년 University of Iilinois at Urbana 언어학 박사취득) ▲〃 대우전임강사=Kevin B. Turner ·▲일문과 대우조교수=姜錫元 (78년 국민대학교 일문과卒) ▲물리학과 〃 =金享培 (80년 연세대 물리학과卒, 87년 미국 텍사스대학원 물리학박사 취득) ▲화학과〃=呂寅亨 (78년 서강대학교 화학과卒, 87년 Iowa State University 분석화학 박사 취득, 한국에너지연구소 선임연구원) ▲정보관리학과〃=李元傅 (77년 연세대 경영대학卒 88년 미국신시내티대학 컴퓨터 정보학 박사 취득) ▲전기공학과 〃= 金英台 (73년서강대 전자공학과卒, 86년 뉴멕시코 주립대 전기공학 박사 취득)

◇경주캠퍼스

▲일문학과 대우전임강사=八木透 ▲철학과 〃=高昌宅 (78년 본교 철학과卒, 87년 본교 철학박사과정 수료) ▲화학과 대우조교수=梁元康 ▲전자계산학과 대우전임강사=咸慶洙 (80년 본교 전산과卒) ▲가정교육과 〃=朴明淑 (82년 본교 가교과卒, 85년 본교 대학원 『가정학과박사과정 진학) ▲법학과 〃 =禹聖基 (81년 서울대 사법대학卒, 88년 동교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무역학과 대우조교수=許宇道 (79년 고려대 경제학과卒, 85년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경제학박사 취득 86년 동력자원부장관 자문관) ▲경영학과〃=金興植 (82년 서울대 사범대학卒, 88년동교 대학원 경영학과 박사과정 수료) ▲의학과 부교수=姜于燮 ▲의학과 조교수=金정란, 尹成澈 ▲의학과 전임강사=林在桂 ▲의학과 대우전임강사=신항순, 全昌鎬, 吳蓮熙, 鄭慶淑 <이상 3월1일자>

경주 교수회 추천 金炯秀부총장

지난달 25일 경주캠퍼스 교수회총회에서 부총장후보로 선출돼 지난6일 부총장으로 임명받은 金炯秀(국문) 교수를 만나 경주의문제점에 대한 생각과 앞으로의 발전방향에대해 알아보았다.

—교수회총회를 통한 전국대학 제2캠퍼스 초유의 직선부총장이 되셨는데 서울캠퍼스에서 일방적으로 임명했던 예전과 비교할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金=과거에는 총장이 임명한 서울의 교수가 경주에 부임함으로써 종속관계를 면키 어려웠읍니다.

그러나, 경주교수회에서 부총장이 직선된 것은 일정부분이나마 자치를 의미하며 경주의 어려움을 잘알면서 행정업무에 보다 신속할수있고 학생·교직원의 세세한 부분의 문제까지 파악이 가능 것이 장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81년에 경주에 부임해 오신 것으로 아는데 경주캠퍼스가 안고있는 문제중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하신 것은 무엇인지요.

金=교육환경과 교육시설의 부족함을 첫째로 들수 있겠는데 그로 인해 교수와 학생이 연구와 학문탐구에 전력할 수 없으므로 교직원아파트건립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현재의 지역개발대학원외에도 경영·교육대학원등을 지역및 캠퍼스특성을 고려해서 신설해 면학의욕을 드높여야할 줄로 압니다.

—동국 83년의 역사가 항상 발전일로를 걸게 된것 같지만은 않은데 그점에 대한 원인과 함께 생각하고 계신바를 말씀해 주시죠.

金=그것은 인사·행정상의 문제에 원인이 있다고봅니다. 그간의 비공개적 행정과 인맥·파벌에 의한 인사는 척결되어야하며 행정이 공개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인사 (신규교수 채용, 승진) 에도 교수와 학생의 중지를 모아야 할것입니다.

거기에 또한 재단의 적극적 지원을 유도하고 교수와 학생이 인화단결해서 활기넘친 대학분위기가 조성되게끔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金=학생들의 요구가 늘고 있는데 적합한 대처방안은 계획하셨읍니까?

—학생들의 요구가 발전적이고 정당하다면 수렴하도록하고 상호사전협의를충분히 거치겠으며 일시방편적 답변은 절대 않겠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문제시되는 타지 유학생 주거환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영진 記者>

인터뷰



재단의 적극적 지원과교수·학생의 인화단결이 절실히요구돼…

갈길 못찾는 재단

○…등록금동결이 결정되었으나 차후 해결과제에 관한 논의가 없고 현재의 학내 상황에선 마치폭발일전의 휴화산 같은 긴장감이 감돌아……

학생들은 이사장실에서는 등록금동결을 빌미로 긴축재정을 펴겠다는 학교측의 소신(?)에 맞서 재단활성화를 요구하며 철야농성을 벌이고, 직원측에서는 88년도 물가상승률에 의한 임금상승만은 아무 의미가 없고 아울러 GNP상승률도 감안하여 임금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이에 本 회전무대子『소나기 지나가길 기다리는 듯한 태도로는 어디 재단재산 써보기나 하겠나요?』

5·5판 「홀로서기」

『중간평가는 재신임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좋다/5공단절을 안하면 안한채로,/…평가를 받는다는 건가슴을 치며 우는 것보다 더 어렵지만/나를 옭아맨 선거공약, 그 아득한 끝에서 대통이며…』—보통사람의 「홀로서기」中.

노보통씨는 여야영수회담을 마치며「중간평가에 대한 소신을 펴고 이에 야도 눈치봐가며 신임연계에대해 목인의 입장으로 굴히기작전에 돌입, 별탈없이 4월초 중간고사는 모의고사로 대치하여 내신성적에는 반영하지 않겠다고!

이에 本회전무대子 컴퓨터피아 시대의 총아가 선거를 두려워 함은 그만큼 「홀로서기」가어렵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듯.

미담은 언제들어도 흐뭇

○…용역회사와의 재계약 문제로 교내일원이 지저분한지 20일이 다 되어가는 지난 11일학교당국은 일일잡근식으로 용역원을 채용하기에 이르러…。

교내에 쓰레기로 뒤덮였던 당시, 사법대에서는 학생회 운영위원들이 솔선하여 학림관 전층을 청소해 보는이에게 경각심과 함께 흐뭇한 미소를 머금게 했는데。

『가뜩이나 이기주의가 만연해가는 요즈음, 정말이지 나로부터 실천이 요구되는 것을 깨닫게 하네요』

합의해도 다시보자 (?)

○…온방골의 코끼리들이 봄 (?) 이 온다는데도 그다지 즐겁고 활기찬 표정이 아니라고 (?)

그것은 지난해 학자투가 기나긴 노정을 거쳤음에도 계절감각 없이 이제서야 결실을 보는듯 학생, 직원의 참여는 없었으나 신임부총장이 선출되고 등록금도 동결되었지만 온방골 학형들의 주체적 동참은 담보해 내지 못한 듯해….

컴퓨터피아 시대연 선구자가 「선거」를 두려워해서야(?)

진정하게 온방골의 발전이 가일층 진작되길 바라며 회전무대子『학생·교수 연대하여 「자나깨나 등국발전」, 「합의해도 다시보자」는 금언을 상기해 「새동국인」들을 잘이끌어야할 책무가 특히 선배에게 있읍니다요』

생명공학에서도 앞서가는 태평양화학



"21세기를 풍요롭게
21세기를 아름답게"

인류가 추구하는 젊음과 아름다움…
그 오랜 인류의 꿈은 첨단생명공학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실현되고 있습니다.
20세기, 우리 인류의 아름다움과
사회의 아름다움을 위해 노력해온 태평양화학은
오랫동안 축적해온 풍부한 노우하우와
고도의 초정밀 첨단기술로 풍요롭고 아름다운
21세기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누구나 풍요롭게 살아가는 미래,
누구나 아름다움을 향유할 수 있는 미래…
그것은 바로 태평양화학이 21세기에서 펼칠
미래의 세계입니다.
태평양화학의 미래를 기대해 주십시오.
21세기는 태평양화학이 아름답게 열어갈 것입니다.

인류를 아름답게 사회를 아름답게
태평양화학



제2회 민족극 한마당

주체로서의 민중의 역할 그려 민족극운동 부각

민족현실을 민중적 입장에서 극복하려는 노력 형상화

지방극단의 공연 활성화로 민족극 발전 꾀해야

「제2회 민족극 한마당」이 전국민족극운동협의회 주최, 한국 민족예술인총연합후원아래 지난 7일에 첫 막을 올려 오는 5월 10일까지 56일간 신촌 예술극장 한마당과 혜화동 연우소극장에서 펼쳐진다.

극단「현장(대표 박인배)」, 극단「아리랑(대표 김명곤)」등 전국 17개 단체가 참여하여『민족극 운동의 성과 구축과 한국연극의 올바른 발전방향 모색』이라는 작년의 「제1회 민족극 한마당」의 취지를 이어받은 이번「제2회 민족극 한마당」은 지난 1회때의 참가작이 각 지역에서의 불충분한 사전공연으로 작품상의 여러가지 미비점을 야기시킨 점을 보완하여 충실한 사전공연을 갖기 위해 제1회 민족극 한마당에 참가한 단체를 중심으로 지난해12월1일 창립된「전국민족극운동협의회 (공동회장 채희완, 임진택, 이상우, 문무병, 윤만식, 김명곤, 박인배)」주최와, 뒤이어 지난해 12월 23일 창립된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공동대표 김윤수, 고은, 조성국)」후원으로 민족극의 자리매김을 더욱더 확고히 하는데 큰 발판이 되고 있다.

지난 십수년간에 축적된 마당극운동의 역량과 과제를 점검하고 보다 진보적인 연극운동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공식적으로 대중앞에 최초로 선보인「민족극 한마당」은 지난해 3월3일부터 4월30일까지 59일간 1백17회 공연에 2만7천2백67명의 관객을 동원하여『민족현실을 민중적 입장에서 극복하려는 노력을 형성화하기 위한 연극행위』라는 민족극의 개념을 확고하게 굳힘과 동시에 현단계 연극문화에서 차지하는 민족극운동의 위치를 뚜렷하게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문화탐방

「전국민족극운동협의회」의 사무국장이며 이번 「제2회 민족극 한마당」의 기획을 맡고 있는 정희섭 (극단 현장 기획) 씨는 민족극운동이 사회변혁에 끼치는 영향에 대하여『노동현장과 농촌현실의 목소리와 무대로 완성된 민족극의 공연도 사회변혁에 적지않은 기여를 한다』고 말하고『민족극의 발전을 위에서는 앞으로 지방극단의 공연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6일, 이행사에 참가하는 17개단체 회원 중 80여명의 풍물패가 예술극장 한마당을 중심으로 신촌 일대를 행진하는 「길놀이」행사와 고사로 진행되었던 전야제에 이어 이번「제2회 민족극한마당」의 첫번째 참가작품인 극단 현장의 「노동의새벽 (연출 박인배)」이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예술극장 한마당에서 공연되었다。박노해의 원작시를 토대로 하여 노래극으로 각색된 이 작품은 가난한 노동자 명준이 노동조합의 일원으로 노동운동을 하다 해고당한 후 계속적으로 노동운동에 참여하는 내용으로『노동의 정서를 적절하게 드러낸다』는 박인배씨의 연출의도하에, 오늘날 우리나라 예술의 전문적 기량이 사회현실로 부터 배타적으로 고립·분산된 것에서 탈피하여 현실성과 효용성을 띠고 있다。

또한, 기대가 되는 몇작품으로 놀이패 한두레 (대표 정연도) 의 「아버지의 행군」과 민요연구회(대표 신경림) 의「모두들 여기 모였구나」, 광주 놀이패 신명 (대표 김도일) 의「황토바람」, 춘천 극단 삼주벌 (대표 김경수) 의「이 땅이 뉘 땅인데」, 극단 아리랑의「불감증」등을 들수 있다。

먼저, 탈춤의 내용과 양식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노동춤」으로 구성된 놀이패 한두레의「아버지의 행군」은 이 시대의 민중적 정서와 역사주체로서의 노동자계층의 역동적인 삶을 표현하고자 한 노동자 집안의 아버지와 아들이 노동조건을 개선해 나가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서구화된 문화적 현실을 극복하며 민중의 삶속에서 우러나오는 노래를 제작·보급하는 민요연구회의「모두들 여기 모였구나」는 국악합주, 반주, 노래발표, 노래놀이 및 대동놀이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공연에서 불려질 대표적인 노래로는「모두들 여기 모였구나」「돌아가리라」「광주천」「통일세상」



박노해의 원작시를 각색한 노래극「노동의 새벽」中

전남지역의 민중적 삶을 토대로한 진보적 문화활동을 목적으로 82년7월창단된 극단 신명의「황토바람」은 한 농촌마을을 배경으로 농민들의 수세문제 인식의 확산과, 단결된 농민들이 농촌문제를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으며, 춘천지역의 대학연극패 출신들이 모여 만든 극단 삼주벌의「이땅이 뉘땅인데」는 미국의 수입개방 압력으로 피폐화되어가는 농촌현실문제와 팀스피리트 훈련군에의해 어린딸이 희롱당하면서 극에달한 마을사람들의 의식변화과정과 투쟁의 모습을 담고있다。

또한「제1회 민족극 한마당」에서「갑오세 가보세」공연으로 주목받은 바 있는 극단 아리랑의「불감증」은 비무장지대에 입영된 어느 사병의 군대생활을 통하여 분단의 모순과 역사속에 드러나는 민중의 힘과 좌절, 부모세대로부터 물려받은 역사적·사회적 유산을 극복하려는 새로운 세대의 힘찬 각오와 굳센 발걸음을 형상화하고 있다。

「민족극 한마당」은 근로자에게 작은 보탬이 되고자 할인혜택이 주어지고 있어, 관객의 30%를 차지한다는 점을 상기할때, 노동자에게 끼칠 영향도를 생각해 보면 상당한 의의가 부여될 만하다。

그러나 내용면에서 노동운동이나 농촌현실의 시기성에 부합되지 못한다면 아무 보탬이 되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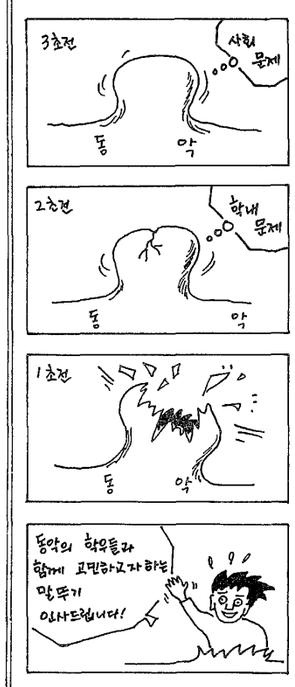
앞으로 분단조국의 현실과 현단계 민중운동의 현실주의에 입각한 내용, 노동문제의 절예한 이슈와 문제의식의 반영, 그리고 관념적 형상을 떠난 날카롭고 구체적인 연출력으로 융합된 민족극과 한국연극계에 끼칠 연극운동의 도약적 발전을 위해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질책이 요구되리라 생각한다。

<貞>

말뚜기

김 성 임

<1>



社 告

제7회 학생논문 현상모집

여러분의 날카로운 知性을!

29년전 독재에 항거하며 뜨거운 몸부림으로 自由와 正義를 갈구하던 4·19의 함성이 암울한 오늘의 현실에 메아리치고 있읍니다。本社에서는 4·19의 참뜻을 되새기고 오늘에 잇고자 본지창간 39주년기념및 4·19 29주년기념 「학생논문상」을 제정하여 원고를 모집합니다。

◇응모자격 : 본교생에 한함 (대학원생 포함)
◇분 량 : 2백자원고지 50매내외
◇원고마감 : 4월10일 (월) 오후5시限
◇발 표 : 4월19일字 本紙紙上
◇접 수 : 本社 학술부
◇시 상 : 당선작 1편 (상장및 상금 20만원)
가 작 2편 (상장및 상금 각15만원)

◇주 제
1. 4.19와 6.10의 비교평가
2. 일간지의 양적 팽창에 따른 질적 향상의 문제
3. 농지제도의 문제점과 방향
4. 불교의 사회적 실천원리
5. 통일—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東大新聞社

만화·만평을 이어받으며

말뚜기



김 성 임

불평등 계급사회의 모순과 싸운 「말뚜기」의 모습 형상화 시킬터

편 커다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여로니 正」을 이어받으면서 선배의 세련된 선과 내용에 익숙해진 동악의 학우에게 나의 서투른 모습을 보이자니 여간 부끄러운 게 아니다。동대신문의 한 고정지면을 차지하며, 맡겨진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이 먼저 튀어나오지만 책임감이라는 것이 선 하나 하나에 조심감을 더하게 한다。

「말뚜기」는 불평등 계급사회에서 그 모순들과 싸운 용감한 천민이다。그를 우리들의 모습으로 형상화시키고 싶다。앞으로 매주 학우들에게 나의, 우리의 이야기를 담아내고자 한다。여러분의 관심과 애정, 그리고 충고가 아주 많이 필요하다。

<문과대 철학과>

단순화된 그림으로 우리의 주장을 펴기란 그리 쉬운 일은아니다。더구나 조그마한 네개의칸 안에 하나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것은 그림의 기술상에서의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마는 그보다는작가로서 갖는 생략, 과장의 기법을 대단히 요구하며 그것에「재미」라는 것이 더해지려면 그리는 이가 알고있는 재치와 해학이 총동원되어야 한다。신문을읽는 사람이면 누구나 만화를 본다。이러한 만화의 대중성은 작가의 주장을 마음껏 펼 수 있는 즐거움이 되기도 하지만 한

東國漫評

붓을 놀리는게 쉽지 않다。선으로 나타나는 한 컷의 그림속에 뜻을 나타내려는것도 그 분량에 비해 너무 벅찬것인지도모



임 치 성

"자신의 뜻을 굽히면 역사의 반역이며 자기양심에 그른다"

르고 개인적으로 쉬운것만은 아닌것 같다。잉크를 묻히며 작업을 끝낸후 남들이 쉽게 볼때 최애쓰지만 글을 읽는 독자나 그림을 읽는 독자들은 작가가 의도한 바를 제대로 파악하고 주소한 자신만은 만족해 한다。기대에 못미쳐서 그림을 구겨버리고 싶을때도 거기에 최선을 다했다고 느꼈을때 더 잘해 보자고 느껴 보기도 한다。

붓을 놀리는게 쉽지 않다。200字 원고지를 채우는 소설가나 화폭에 선, 색을 긋는 화가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나타내려 제를 바로 이해한다고만은 할수 없을 것이다。역시 한 컷짜리에 뜻을 표현하려는 노력이 남들에게 그 결과가 오해로 나타날수도 있다고 본다。선배님의 동국만평을 이어 받으며 형보다 나은 아우가 없다고 선배보다 무능한 후배의 한 컷이지만 딴의 노력에 격려를 바랄 뿐이다。

붓을 놀리는게 쉽지 않다。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으면 시대의 탄압을 받는것뿐이지만 자기의 뜻을 굽히면 역사의 반역인 것이며 자기 양심에 그른다는것이다。법률가와 교육자와 붓을 쥔 자가 뜻을 굽힌다면 나라가 기운다는 짧은 소견으로 한 컷의 그림이 대중에게 뜻을 전해야 한다는 말에 책임감을 느낀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

<경상대 경제학과>

메아리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고개를 넘어간다…。』이는 너무나도 유명한 아리랑이다。세마치장단으로 된 이 민요는 우리민족의 정서에 적합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가장 널리 애창되어 왔다。한말 이후 일제의 강점기에는 겨레의 울분과 감정을 표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다。고국을 등지고 만주나 이역만리에서 독립운동을 하거나 고국의 독립을 갈망했던 동포들은 의례 모이기만 하면 아리랑을 목놓아 불렀으리라。지금도 남과 북을 가릴것 없이 동포들은 해외에서 아리랑을 자주 합창한다고 한다。해방직후 국내에서도 외국선율로 된 애국가가 부적당하다고 하여 아리랑을 국가처럼 부르기도 했다고。▲이처럼 가장 민족적인 우리의 노래 아리랑은 어떤 타노래보다도 널리 애창되어 한민족임을 일깨워준다。그 가락에는 남과북이 따로 있을수 없고 더구나 이념이나 체제가 따로 있을 수 없다。▲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지난 9일에 있은 90년 베이징아시아경기 단일팀 구성 첫번째 회담에서 그「위력」을 여실히 보여줬다。그간 남북대화의 걸림돌역할을 했던「팀스피리트」문제가 거론되지 않아 다소 순조롭게 시작된 첫 접촉에서 다른 의제와는 달리 국가 (國歌) 를 바로 아리랑으로 한다는데 의견일치를 봤다。그와 동시에 북측에서 준비해온 아리랑의 녹음「테이프」를 같이 들으면서 이들 협상대표들은 무얼 느꼈을까。과연 민족공동체의식을 느꼈을까。이에대한 직접적인 대답은 들을 수 없지만 짐작을 하기엔 충분하다。당일 양측이주장한 선수단 명칭이나 선수단장 선임문제에 있어 약간의 차이점 같지만 여전히「我田引水」격의 주장임이 쉽게 발견된다。▲물론 다른 남북간의 회담에 비해서는 진일보했지만 이것도「팀스피리트」문제를 거론하지 않았기에 그만큼 진전된게다。오는 7월1일에 있을「평양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전대협이 참가한다고 한다。「반제연대성」과「평화」와「친선」을 위하여라는 기치로 남북의 청년학생들이 서로만나 체제와 이념을 초월해 민족의식을 느끼고 함께 부대낀단다。이를 통해 남과 북의 장벽을 허물고 통일의길로 아리랑을 합창하며 나아가야 할 게다。그게 바로 이땅 젊은이들에게 맡겨진 사명이기에 말이다。

<煥>

아리랑 합창

"홀로서기"

영광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내가 나를 움직인다? 당연한 이야기같지만 자신이 행동의 주체가 되는 경우는 얼마나 될까요.

12년 동안의 학교생활속에서 공부 열심히 해라, 이 책은 보지마라, 하지마라, 졸지마라… 수 없이 요구되는 주문의 홍수는 자율보다는 타율을 강요해 왔읍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 들어온 대학. 모두들 대학은 타율보다는 자율적으로 생활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입생들은 넘쳐나는 시간을 주체못해 이모임 저모임에 휩쓸리거나 레포트에 짓눌려 고3 시절 같은 압박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제는 대학인! 머리부터 발끝까지 홀로서기를 통하여 자율을 흠뻑 맛보며 이에 따른 책임을 질줄아는 멋진 대학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포항제철은 다음世代의 행복과 다음世紀의 번영을 약속하는 기업입니다.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POHANG IRON & STEEL CO.,LTD.